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碩士學位論文

# 『紅樓夢』의 인물 晴雯에 대한 考察



濟州大學校 大學院

中語中文學科

李 眞 杉

2015年 2月

# 『紅樓夢』의 인물 晴雯에 대한 考察

指導教授 趙成植

李眞杉

이 論文을 中文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2015年 2月



李眞杉의 中文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審査委員長

委 員

委 員

인 동호 (印)  
趙 洪善 (印)  
趙 成植 (印)

濟州大學校 大學院

2015年 2月

# 目 次

I. 序 論 .....	1
II. 晴雯의 概括 .....	6
1. 晴雯의 身世와 背景 .....	6
2. 晴雯의 이름 .....	11
3. 晴雯의 其它 .....	13
III. 晴雯의 性格特征과 晴雯의 죽음 .....	18
1. 晴雯의 性格特征	
1) 귀여움(可愛) .....	18
2) 끔찍함(可怕) .....	24
3) 가여움(可伶) .....	30
2. 晴雯의 죽음 .....	32
IV. 晴雯의 文學價値 .....	38
1. 晴雯의 陪襯作用 .....	38
2. 芙蓉花의 象徵性 .....	40
3. 晴雯形象의 美學意義 .....	42
V. 結 論 .....	46
參 考 文 獻 .....	48
【中文提要】 .....	50



## I. 序 論

“중이 가득 황당한 말에, 한 움큼 쓰라린 눈물 흐르네. 모두들 작자가 어리석다 말하니, 누가 그 속의 진미를 알리오.(滿紙荒唐言, 一把辛酸淚. 都云作者癡, 誰解其中味.)<sup>1)</sup>

두 세기 반전에 쓰여진 조설근의 『紅樓夢』은 中國民族에게 높은 文學的 금자탑을 세워주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後世 독자들에게 복잡하게 뒤섞인 예술적 미궁을 만들어 주었다.

『紅樓夢』은 出版된 이래로 많은 사람들의 관심 속에 연구되고 있으며, 더욱이 현대에는 『紅樓夢』을 연구하는 학문 분야로 홍학(紅學)을 만들어, 서로 다른 관점에서 연구하여 수많은 논문과 유명한 학자들이 배출되고 있다.

『紅樓夢』의 예술상의 거대한 성취는 수많은 등장인물들의 생동적이고 개성에 충실한 인물묘사로 생생한 현장감을 전달하는데 있다.

조설근의 소설 속 등장인물은 각각 성격과 신분이 다르고 뚜렷한 개성이 있다. 보(寶)·대(黛)·채(釵)·봉(鳳) 등의 주요 인물을 두드러지게 하는 것 또한 말할 필요도 없다.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副次적인 人物도 신선하면서 독특하게 묘사해 깊은 印象을 주니, 예를 들면 청문(晴雯)이다.

청문은 『紅樓夢』 남자 주인공인 가보옥(賈寶玉)의 8대 侍女 중 한 명으로, 『금릉십이채우부책(金陵十二釵又副冊)』의 첫째이다. 비록 지위는 높지 않지만, 作者는 그녀에 대해 描寫한 분량이 매우 많다.

『紅樓夢』 줄거리 중 正面에서 登場하는 것은 20번인데, 그 중에 청문을 회목(回目)으로 한 것은 4번이고, 74회인 『혹간참초검대관원(惑姦讒抄檢大觀園)』에서 비록 청문을 회목으로 하진 않았지만, 청문은 오히려 이 회에서 作者가 붓을 대어 분명히 드러내는 人物 중의 하나이다. 이 장은 청문의 운명이 기우는 것을 암시하는 중요한 회이기도 하다.

마찬가지로 78회인 『치공자두찬부용뢰(癡公子杜撰芙蓉誅)』에는 청문이 등장하지는 않지만, “부용뢰(芙蓉誅)”는 죽은 청문을 위해 가보옥이 지은 것이다.

『紅樓夢』에서 청문은 80회 이전에 등장하는 인물이자, 조설근의 붓 끝에서

1) 脂硯齋批評本, 「紅樓夢」第一回『甄士隱夢幻識通靈 賈寶玉風塵懷閨』, 鳳凰出版傳媒集團鳳凰出版社 2010, p.6

자신의 인생길을 다 걸은 지극히 적은 藝術的 典型이다. 아름답지만 가슴을 아프게 하는 작자의 의도에 의해 創作된 인물인 것이다. 매우 짧은 78개회에서 청문을 위주로 한 것은 6개로 청문에 대한 조설근의 寵愛 및 그가 바친 열정을 엿볼 수 있다.

『紅樓夢』의 각 판본은 청문의 묘사에 대해 큰 차이가 없이 비교적 一致한다. 청문은 비록 小說에서의 주요 인물은 아니지만, 그녀의 묘사에 대해 조설근이 들인 노력은 결코 보(寶)·대(黛)·채(釵)·봉(鳳) 등 주요 인물들의 묘사에 뒤지지 않고, 그녀에 대한 人物 描寫는 아주 풍부하고 性格 描寫는 매우 뛰어났다. 청문에 관한 評論 및 研究는 지금까지 200여 년이나 진행 되고 있다.

청문이라는 이 예술적 形象의 評論 및 歷史的 概況을 回顧하면, 그녀에 대한 分析과 評論에는 이미 많은 成果가 있었으니, 시간에 따라 大體的으로 다음의 두 개의 發展 段階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1919년 이전이다. 주로 그녀에 대한 사대부 위주의 “평점파(評點派)”의 비판적 평론들이다. 이 평론가들에서 호화주인(扞花主人) 및 대모산민(大某山民: 姚燮)의 청문에 대한 평론에는 特徵이 있다. 예를 들어 대모산민은 간단한 “조찬(刁鑽: 교활하다)”이라는 두 글자로 청문의 성격을 형용하였다.

다른 하나는, 1919년 이후부터 지금까지이다. 5·4 運動이 일어남에 따라 新民主主義 색채를 띤 論調가 청문의 反抗 이미지에 반영되기 시작하였다. 예를 들어 왕곤륜(王昆侖)의 『홍루몽인물론(紅樓夢人物論)』<sup>2)</sup>은 계급 분석의 입장에서부터 청문을 認定하였다. 왕곤륜이 첫 번째로 청문에 관한 論述을 발표한 이래로 많은 학자들은 다른 각도에서 다른 방법을 운용하여 그녀에 대해 多方面으로 분석하고 평론하였다.

20세기의 청문 연구는 어느 정도의 성과를 얻었다. 1949년 이후, 新 中國의 건립은 文藝界에 새로운 활기를 가져다주었으니, 마르크스 관점으로 문학을 평론하고 연구하는 것은 당시의 시대적인 風潮가 되었다. 그 중 하기방(何其芳)의 『논홍루몽(論紅樓夢)』은 가장 대표성을 지닌다. 하기방은 청문을 가장 아름답고 가장 용감한 여성이라고 찬미하였다<sup>3)</sup>.

그러나 1979년 개혁개방 이후, 청문의 이미지에 대한 분석에도 多元化가 나타난다. 예를 들어 양지걸(楊志杰)의 눈에 청문은 강한 반항성을 지닌 여자 노비이다<sup>4)</sup>.

2) 王昆侖, 「紅樓夢人物論」, 河北教育出版社, 1989,

3) 何其芳, 「論紅樓夢」, 人民文學出版社, 1961, p.142

4) 楊志杰, 「爲晴雯昭雪」, 『紅樓夢研究集刊』, 上海古籍出版社, 1979年, 第1輯

그는 청문의 뜨거운 감정에는 차라리 죽을지언정 굽히지 않는 “야성(野性)”과 평등을 추구하는 “인성(人性)”이 있다고 여겼다.<sup>5)</sup>

그러나 여러 분석과 평론에서 왕몽(王蒙)은 새로운 생각의 방향을 開拓해내었다. 『홍루계시록(紅樓啓示錄)』, 『왕몽활설홍루몽(王蒙活說紅樓夢)』, 『홍루몽왕몽평점(紅樓夢王蒙評點)』 등의 저작에는 청문에 대해 모두 뛰어난 評論이 있다. 작자는 독특한 시각으로 청문의 감정과 운명을 解讀하였다. 시대적 이데올로기의 變化에 따라 학자들의 청문에 대한 분석과 평론에도 변화가 생겼다.<sup>6)</sup>

하지만 ‘홍학’에서 청문이라는 이 이미지에 대한 연구로써 학자들은 청문의 반역 정신 및 봉건 예교에 대한 청문의 反抗意識과 性格的 特徵에서부터 着手하여, 청문이라는 이 특정 이미지의 社會的 意義를 집중적으로 討論하였으나, 인물 자체의 個性的 內包에 대한 발굴은 오히려 不足해 보인다. <sup>7)</sup>

청문은 조설근의 붓 끝에 生動感이 풍부한 인물 이미지로, 다른 등장인물과 鮮명한 인간적 특징을 지닌다. 言行 描寫도 비교적으로 많아 큰 研究 空間이 존재하여 進一步하게 研究할 만하다.

本文은 주로 세 부분으로 晴雯이라는 人物 이미지를 論述한다.

(1) 제 2장은 晴雯에 관해 논술하였다.

첫째, 晴雯의 一生 背景을 소개하였으니, 즉 晴雯이 어떻게 가부(賈府)에 들어가게 되었는지 등 가부에서의 成長과 地位를 나누어 논술하였다.

둘째, 晴雯의 이름을 研究하였다. “晴雯” 두 글자의 考證과 含義 변화 그리고 책속에서 나타나는 “晴雯”이라는 의미에 대해서 나누어 논술하였다.

셋째, 晴雯의 其他 方面에 言及하였으니, 청문의 外貌·복식·음식·취미 등을 包括하였다.

(2) 제 3장은 晴雯의 性格 特徵과 晴雯의 죽음을 논술하였다.

먼저, 청문의 성격 특징은 각각 귀여움 · 무서움 · 불쌍함의 감정기복을 통해서 인물의 독특함과 풍부함을 전개하였다.

그 다음으로, 청문의 죽음을 연구하였는데, 청문이 억울하게 쫓겨나고 참혹하게 죽은 것은 보옥의 마음에서 떨치기 힘든 아픔으로, 청문의 성격적 배경과 그로 인해 내용상 결말이 비극임을 논술하였다.

5) 楊志杰, 「爲晴雯昭雪」, 『紅樓夢研究集刊』, 上海古籍出版社, 1979年, 第1輯

6) 王蒙 ... 參照

7) 孫樹勇, 「論晴雯形象的人性內涵」, 2003年3月, 總108期, 第3期


(3) 제 4장은 晴雯의 文學적 價値를 論述하였다. 먼저, 晴雯의 보조 역할을 연구하였다.

청문은 소설에서 그 다음으로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보조역할은 중요하다. 청문은 임대옥의 그림자로, 그녀는 모습이 예쁘고 슬기로우며 심성이 고결하여, 결말의 悲慘함이 대옥과 비슷하다.<sup>8)</sup> 그래서 본 소설은 대옥에 대한 청문의 보조역할을 주로 논술하였다.

그 다음으로, 芙蓉花의 象徴 作用도 중요하기 때문에, 청문의 運命과 結末은 그것과 緊密하게 關聯시켰다.

마지막으로 청문의 美學적 意義를 전개하였는데, 청문의 비극적 이미지에 대한 研究를 통해 悲劇에 대한 우리의 감상능력을 깊게 하고 우리의 審美能力과 感賞能力 등을 向上시킬 수 있으므로 研究해 볼 가치가 있다.

※ 논문에서 등장인물과 남자주인공 가보옥(賈寶玉)과의 관계도 ※

 제주대학교 중문학과 JEJU NATIONAL UNIVERSITY		가모[賈母](할머니), 가정[賈政](아버지), 왕부인[王夫人](어머니), 설이모[薛姨媽](이모), 임대옥[林黛玉] (고모의 사촌동생), 설보채[薛寶釵] (이모의 사촌동생), 왕희봉[王熙鳳](새언니), 가담춘[賈探春](여동생)
2. 하인들	1) 가보옥의 큰 시녀	청문[晴雯], 습인[襲人], 사월[麝月], 추문[秋紋], 단운[檀雲], 기산[綺霞] 벽흔[碧痕], 천설[茜雪]
	2) 가보옥의 작은 시녀	소홍[小紅], 추아[墜兒], 방관[芳官]
	3) 가모, 왕부인 및 다른 아가씨의 시녀	평아[平兒], 원앙[鴛鴦], 소운[素雲], 호박[琥珀], 자견[紫鵲], 채하[彩霞], 옥천[玉釧], 취묵[翠墨], 취루[翠縷], 가아[可兒], 금천[金釧]
	4) 사씨 집의 늙은 하인	뇌대[賴大], 뇌마마[賴嬾嬾], 유가[柳家], 임지효[林之孝], 완선보가[王善保家]

8) 許山河, 「黛玉影釵副 各領風騷—論晴雯襲人的悲劇形象」, 『衡陽師範學院學報』, 第26卷, 2005年 8月, 第4期



## Ⅱ. 晴雯의 概括

### 1. 晴雯의 家世背景

晴雯(청문)은 『紅樓夢』의 남자 主人公인 가보옥(賈寶玉)의 중요 侍女로, 副次的으로 중요한 역할이라 할 수 있다. 그녀의 집안 背景과 이름의 由來에 관해서는 分明하지 않은 것 같다. 그녀의 外形과 生김새 및 個人的인 취미 등도 확실치 않다. 본장은 이러한 問題들에 대해 일일이 펼쳐서, 더욱 體系化 된 청문의 이미지를 가능한 한 復原하고자 한다.

『紅樓夢』은 清代 중엽에 創作되었고, 청문은 책에서 가씨 집안[賈府] 시녀 중의 한 명이다. 賈氏 집안은 대량의 奴婢를 갖고 있는데, 집사부터 사내중까지, 할멈부터 계집중까지 等級과 나이가 각기 다르다. 청문의 집안 배경을 言及하기 전에 먼저 가씨 집안의 내력에 대해서 알아보자.

『紅樓夢』을 읽어 본 적이 있고 淸代 역사를 이해하는 사람은 가씨 집안의 내력과 분위기가 淸代 奴婢制度和 큰 관련이 있음을 어렵지 않게 發見한다. 淸대는 위로는 皇帝부터 아래로는 豪族(豪族)과 富戶(富戶)까지 모두 노비를 두는 제도가 있었다. 淸代 황제는 궁에 대량의 太監(太監)과 宮녀를 데리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皇帝를 위해 田畝(田畝)와 莊園(莊園)을 경작할 많은 奴僕(奴僕)을 따로 가지고 있었다.<sup>9)</sup> 가씨 집안도 이러하여, 많은 노비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耕作地에도 농사지를 農夫를 雇用하였으니, 오진효(烏進孝)가 그 중 한사람 이다.

가씨 집안은 노비가 많고 노비들의 출처가 불분명하다. 노비들은 대체적으로 두 種類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집안 대대로 노비인 사람은, 만주족이 山海關(山海關)으로 들어오기 전에 戰爭 포로 혹은 破産한 農民들로 ‘포의(包衣: 가내 노예)’가 되었는데, 그들의 자손들도 대대로 노비가 되었다. 마찬가지로 작자 조설근의 소설에서 寧國府(寧國府)·영국부(榮國府)는 벌써 오랜 세월을 지나서, 처음에 그들의 집안에는 하인들이 많이 있었다. 그래서 주인은 남자 하인과 여자 하인을 서로 결혼시켜서 후손을 낳게 했

9) 韋慶遠等著, 「清代奴婢制度」, 北京: 中國人民大學出版社, 1982, pp.1-6

고, 그들의 아이들도 대대로 奴婢가 되게했다. 가씨 집안의 侍女들 또한 대대로 노인경우가 많았고, 이는 다른 집안하고 다른 가장 큰 특징이다.

원앙(鴛鴦)·소홍(小紅) 같은 책에 쓰인 侍女들의 대부분은 이러한 특징을 갖고 있다. 원앙의 부모는 가씨 집안을 위해 집을 管理하고, 소홍의 아버지는 執事인 임지효(林之孝)이다. 집안 대대로 노비인 사람들에게도 地位의 변화가 있었으니, 예를 들어 총지배인격인 뇌대(賴大)의 아들 뇌상영(賴尙榮)은 가씨 집안에 의지하여 지현(知縣)이라는 官職을 버렸다.

둘째, 팔려온 奴婢들로, 家庭 형편이 빈곤하여 부모에 의해 팔려 올 수밖에 없는 형편에 사람들이 많았다. 습인(襲人)의 경우가 그러했다.

그렇다면 청문은 위의 種類 중 어디에 속하는가? 청문의 상황은 비교적 특수했으니, 그녀는 어느 종류에도 속하지 않는다.

※ 이 논문 에서 주요 등장하인들의 내역표:

1.집안 대대로 노비인 사람	원앙[鴛鴦], 평아[平兒] 소홍[小紅], 추아[墜兒] 유가[柳家], 임지효[林之孝], 완선보가[王善保家]
2,팔려온 노비	습인[襲人], 사월[壽月], 방관[芳官]
3,은퇴한 노비	뇌대[賴大], 뇌마마[賴嬤嬤]

청문이 했던 집안일에 관해서 책에서는 상세하게 설명하지 않았으니 산발적인 자료에 의지해 참고해 보건데, 청문의 신분은 사실 매우 微賤하였다. 그녀는 가씨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하인의 후손도 아닐뿐더러 가씨 집안에서 돈을 써서 사온 侍女도 아니었다.

청문이 했던 집안일에 관해서, 晴雯은 습인·사월(壽月)·원앙 등의 사람들과는 달랐다. 그녀는 어려서부터 가씨 집안에서 자란 것이 아니 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제 46회에서 원앙과 평아(平兒)가 말하기를:

“我只想咱们好，比如袭人，琥珀，素云，紫鹃，彩霞，玉钏儿，麝月，翠墨，跟了史姑娘去的翠缕，死了的可人和金钏，去了的茜雪，连上你我，这十来个人，从小什么话不说？什么事不做？”<sup>10)</sup>

10) 脂硯齋批評本「紅樓夢」,第四十六回『尷尬人難免尷尬事,鴛鴦女誓絕鴛鴦偶』,鳳凰出版傳媒集團鳳凰出版社, 2010, p.361

“이건 우리가 남달리 친한 사이니깐 하는 말이지만 습인이, 호박이, 소운이, 자견이, 채하, 옥천아, 사월이, 취묵이, 상운, 아가씨를 따라간 취루, 죽은 가인과 금천아 이 덕에서 쫓겨 나간 천설이 그리고 너와 나를 포함한 이 몇 사람만 어려서부터 서로 못하는 소리가 없었던 사이가 아니야?”

그들 중 평아와 소운(素雲)을 제외하고 모두 가모(賈母)와 왕부인(王夫人) 곁의 시녀이다. 예를 들어 자견(紫鵲)은 임대옥(林黛玉)에게 주었고 취묵(翠墨)은 가탐춘(賈探春)에게 주었으며, 취루(翠縷)는 사상운(史湘雲)에게 주었고 습인과 사월은 가보옥에게 주었다.

청문에 대한 언급한 부분은 없으나 뇌대가의 어머니 뇌마마(賴嬷嬷)가 대략 10살 때 가모에게 주어 78회에 청문이 죽을 때인 16살까지는 청문이 가씨 집안에 들어간 지 6년간 이다. 가씨 집안의 富貴는 오랜 歲月동안 維持되어 은퇴한 늙은 하인들도 많이 있었다. 이러한 은퇴한 늙은 하인들은 전主人들을 모셔왔었기 때문에 가씨 집안의 主人들도 그들을 매우 尊敬하였다.

그래서 은퇴한 하인들은 여러 해 동안의 奉事를 통해 많은 財物을 모으기도 하였으나, 통상적으로 가씨 집안에 살지는 않았다. 그들은 가씨 집안에 出退勤하였다. 위에서 말한 뇌대가 바로 이러한 경우이다. 뇌대의 어머니인 뇌마마(賴嬷嬷)는 가모 세대의 늙은 하인으로, 그들은 가씨 집 밖에 자신의 住宅이 있었다. 이러한 하인은 자신의 집에도 자신의 奴婢를 가질 수 있었을 것이다. 청문은 바로 뇌대 집안에서 사들인 계집종이었다.

10살이 되기 전에 뇌마마가 가씨 집에 데리고 가서 인사로 시켰고, 가모가 청문을 보자마자 좋아하자 뇌마마는 바로 청문을 존경의 뜻으로 가모에게 주었다. 청문은 이렇게 가씨 집에 들어갔는데, 그녀는 먼저 가모의 시녀였다가 후에 가모에 의해 그녀를 가보옥에게 주었다. 그래서 청문은 단지 하인의 下人일 뿐이었다.

그래서 그녀가 “신분이 낮고 천하다”는 표현도 매우 적절한 것이었다. 그러나 책에서 청문의 가정상황에 관해서는 그녀가 가씨 집에 들어왔을 때 이미 고향이 어디고 부모가 누구인지를 기억하지 못하고 자신에게는 한 명의 고종 사촌 오빠가 있다는 것만 언급할 뿐이다. 이 때문에 청문은 어릴 때부터 孤兒여서 신세가 매우 불쌍하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

제77회: “这晴雯当日系赖大家用银子买的, 那时晴雯才得十岁, 尚未留头。因常跟赖嬷嬷进来, 贾母见他生得伶俐标致, 十分喜爱。故此赖嬷嬷就孝敬了贾母使唤, 后来所以到了宝玉房里。这晴雯进来时, 也不记得家乡父母。只知有个姑舅哥哥……”<sup>11)</sup>

“청문은 원래 뇌노파가 수년전에 사들인 아이였다 그때는 열 살밖에 안 되는 어린아이로 머리도 채 기르지 않은 채 늘 뇌노파를 따라 가씨네 부중으로 드나들곤 했다 그러던 중에 우연히 가모의 눈에 띄어 환심을 사게 되었다. 아이의 생김새가 예쁘기도 했거니와 말하는 품이나 행동거지가 여간 영리하고 민첩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것을 본 뇌노파는 대뜸 청문을 대부인에게 바쳐 시중을 들도록 했고 후에는 또 보옥의 시중을 들게 된 것이다. ”

가씨 집안의 시녀는 세 等級으로 나눌 수 있다.

※ 논문에서 등장하는 시녀들의 월급표 ※

대시녀	원앙[鴛鴦] 평아[平兒] 습인[襲人]	한냥은자(1兩銀子)
	청문[晴雯], 사월[麝月], 추문[秋紋], 단운[檀雲], 기산[綺霞], 벽흔[碧痕], 천설[茜雪]	한관은자(1吊銀子)
작은 시녀	소홍[小紅], 추아[墜兒] 방관[芳官]등...	오백문(500錢)

예를 들어 제 3회에서 알 수 있듯, 가모 곁의 1,2등급 侍女이다. 청문은 1.2등급에 속하는 시녀라고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36회의 봉저(鳳姐)의 描寫를 통해 알 수 있듯, 시녀의 等級이 다르면 月給도 달랐다.

“袭人原是老太太的人, 不过给了宝兄弟使。他这一两银子还在老太太的丫头分例上领。如今说因为袭人是宝玉的人, 裁了这一两银子, 断然使不得。若说再添一个人给老太太, 这个还可以裁他的。若不裁他的, 须得环兄弟屋里也添上一个才公道均匀了。就是晴雯麝月等七个大丫头, 每月人各月钱一吊, 佳蕙等八个小丫头, 每月人各月钱五

11) 脂硯齋批評本「紅樓夢」, 第七十七回『俏丫鬟抱屈夭風流, 美优伶斬情歸水月』, 鳳凰出版傳媒集團鳳凰出版社 2010, p.613

百……”12)

“습인은 원래 할머니방에 딸려있던 시녀인데, 보옥 도련님이 임시로 데려다 쓰는 셈이니까 모지란 한냥 월급은 할머니 방에 배당되는 부분에서 받고 있지요. 그런걸 지금 습인이 보옥 도련님 방에 가 있다고 해서 그 한냥을 줄인다면 그건 부당한 거예요. 만일 할머니 방에 다시 한 사람을 더 보태어 쓰게 된다면 그때는 줄여야겠지요. 그렇지 않으면 환도련님한테도 한사람 더 늘여 주어야 공평해 질테니까요. 청문이나 사월이 같은 일곱명의 시녀들은 매월 한관씩이고 가혜같은 애들 여덟명은 달마다 오백문씩 받고 있는것도 역시 할머니께서 정하신거니까 아무도 군소리를 못하고 있는거예요.”

제 5회에서 가보옥의 4대 시녀가 등장할 때, 청문은 단지 습인의 뒤에 排列되었고 사월은 세 번째에 排列되었다. 가보옥의 방에는 추문(秋紋)·단운(檀雲)·기산(綺霰)·벽흔(碧痕)·천설(茜雪) 등의 시녀들이 있었다. 晴雯이 가보옥의 시녀들 중 배열이 매우 앞쪽에 있음을 알 수 있다.



“于是众奶姆伏侍宝玉卧好了，款款散去，只留下袭人、晴雯、麝月、秋纹四个丫鬟为伴。”13)

“유모들은 보옥을 거들어 자리에 눕혀놓고는 습인 청문 사월 추문 네 시녀만 남겨두고 조용히 물러갔다.”

제 63회에서 가보옥의 생신 祝賀를 위해 侍女들은 각자 돈을 내었다. 청문은 습인·사월·추문처럼 각각 5전의 은자를 내었다. 어린 시녀들은 3전의 은자를 내었다. 시녀들의 地位가 다르면 내는 돈도 자연히 달랐으니, 이는 청문의 지위를 反映하기도 하였다.

12) 脂硯齋批評本「紅樓夢」,第三十六回『綉鴛鴦夢兆絳芸軒 識分定情悟梨香院』,鳳凰出版傳媒集團鳳凰出版社, 2010, p.283

13) 脂硯齋批評本「紅樓夢」,第五回『游幻境指迷十二釵 飲仙醪曲演紅樓夢』,鳳凰出版傳媒集團鳳凰出版社, 2010, p.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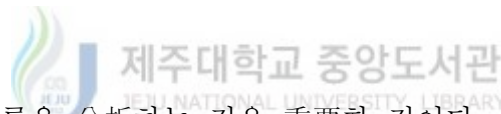
袭人笑道：“你放心，我和晴雯、麝月、秋纹四个人，每人五钱银子，共是二两。芳官、碧痕、小燕、四儿四个人，每人三钱银子……”<sup>14)</sup>

제 63회: 습인이 웃으면서 말하길 “걱정마세요 저하고 청문이 사월이 추문이 이렇게 넷이서 닳돈씩을 내고 방관이 벽흔이 춘연이 사아 넷은 석돈씩을 내서 도합 석냥두돈을 이미 유아주머니에게 주어 과일 쟁반을 준비…… ”

이홍원(怡紅院)에서 일하는 사람은 많으니 일이 적은 것들로 유명하다. 모두 이홍원 안에 들어가서 일을 하고 싶어 했지만, 큰 집사인 임지효의 딸 소홍만 들어서 주방의 류가(柳家)도 딸을 이홍원으로 보내 종노릇을 하게하고 싶었다.

이홍원의 많은 侍女들 중 晴雯의 배열은 습인 다음이었을 뿐으로, 그 지위가 낮다고 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 2. 晴雯의 이름



책에서 人物의 이름을 分析하는 것은 重要한 것이다. 인물에 따라 이름을 인식하고 인물에 따라 運命을 이해하는 것은 자품이해에 도움을 준다.

『紅樓夢』속 등장인물의 이름은 複雜하지만 이름 속에 뜻을 이해하면 또 다른 재미가 있다.

소설 속 인물의 이름은 깊은 뜻을 함축하고 있다. 게다가 소설 속의 인물 명명에도 작자의 愛憎과 褒貶(褒貶)을 주었다. 예를 들어, “임대옥(林黛玉)”이라는 이름은 고고하고 우울하면서 수려한 격조가 있다. 그리고 “빈빈(顰顰)”과 “대옥”은 느낌조차도 일치하여, 그 가운데 표현한 우울함은 더욱 생동적이 있다.

소설의 조연으로서의 시녀들은 비록 대부분 성씨와 이름이 없지만, 작자에 의해 간단히 言及만 되고 지나가지는 않았다. 어떤 연구자가 指摘하기를, 작자는 시녀의 명명原則에 관해 둘씩 짝을 이루고 우아하여 속되지 않다라고 하였다.<sup>15)</sup> 사실 더욱 중요한 것은 시녀의 명명을 그들 주인의 身分과 地位, 심지어 性格 및 運命과

14) 脂硯齋批評本「紅樓夢」,第六十三回『壽怡紅群芳開夜宴 死金丹獨艷理親喪』,鳳凰出版傳媒集團鳳凰出版社 2010, p.492

15) 趙岡, 「紅樓夢里的人名」上海古籍出版社 1989, pp.164-169.  
王紹良, 「略論紅樓夢人物姓名之間的關聯關係」, 『中州學刊』, 1989, pp.87-89

聯關지어 같이 본다는 것이다.

『紅樓夢』중 가장 중요한 남녀 주인공인 가보옥과 임대옥의 시녀 작명은 더욱 작자의 걸작으로, 작자의 인물 작명에서의 장인정신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다.

가보옥의 이홍원에 있는 8대 시녀인 襲人(습인)·晴雯(청문)·麝月(사월)·秋紋(추문)·檀云(단운)·綺靄(단운)·碧痕(기산)·茜雪(천설)의 명명은 모두 그녀들 주인의 성격과 運命에 맞춰서 만들어진다. 이러한 여자 아이들은 모두 예쁜 이름을 갖고 있고, 그녀들은 가보옥의 가호 아래 즐겁게 생활한다.

그러나 자세히 연구해보면 그녀들의 이름은 모두 하나의 共通된 特徵—허황함·희미함·보이지 않음·쉽게 흩어짐 등이 있음을 쉽게 發見할 수 있다.

위의 이름들은 모두 아름다움·고상함·허황함등 오래 존재하기 어려우면서도 쉽게 사라지는 운명을 갖고 있다.<sup>16)</sup> 청문은 가보옥이 가장 寵愛하는 시녀로서, 진짜 성명은 考證할 방법이 없으나 “晴雯” 두 글자는 오히려 깊이 研究해 볼만 하다.

『金陵十二釵又副冊』의 청문의 결론에서 “비 갠 날 밤 달은 만나기 어렵고(霽月難逢) 오색 구름 쉬이 흩어지네(彩雲易散)”는 晴雯이라는 이름의 함의를 내포하였다.<sup>17)</sup>

비 온 후 새로이 개는 것을 “제(霽)”라 하는데 “晴”을 나타내고, 구름이 여러 빛깔을 드러내는 것을 “雯”이라 한다.<sup>18)</sup>

이리하여 필자는 晴雯이라는 두 글자의 명명은 청문의 고결한 품격에 대한 작자의 찬양을 기울였을 뿐만 아니라 가보옥이 청문 등 시녀들이 청춘을 영원히 간직할 수 있기를 바라는 念願을 充分히 俱現하기도 하였으면서, 게다가 가보옥의 高潔한 관념 및 환상적인 의식을 反映하였다고 여긴다.

청문이 여인의 마음을 알아주는 가보옥을 만난 후 苦盡甘來하였음을 암묵적으로 가리켜, 그녀가 다시 살아나게 되었음을 例示하기도 한다.

“오색 구름 쉬이 흩어지네”는 바람이 세차서 구름이 쉽게 흩어지니 오색 구름이라도 역시 그러하다는 것을 가리킨다.

“쉬이 흩어지다”는 또한 晴雯의 가장 마지막 悲慘한 運命을 정하기도 하였다. 이리하여 晴雯의 이름은 우리에게 그녀의 美人薄命의 비극적 인생을 말하였다.

16) 「略論紅樓夢中丫鬟人物的命名」, 『韓山師範學院學報』, 2003年6月, 第24期, 第2卷

17) 脂硯齋批評本「紅樓夢」, 第五回『游幻境指迷十二釵 飲仙醪曲演紅樓夢』, 鳳凰出版傳媒集團鳳凰出版社, 2010, p.41

18) 翟勝建, 「紅樓夢人物姓名之謎」, 上海古籍出版社, 2003, p.122

### 3. 晴雯의 其它

#### 1) 晴雯의 外形

『紅樓夢』은 직접적으로 인물의 초상을 紹介하는 작법을 매우 적게 쓰면서, 자주 채택한 방법은 책 속 인물의 시각을 利用하여 또 다른 인물을 재현하는 외형적 특징을 느끼거나, 인물의 말을 이용하여 또 다른 인물의 생김새를 평가한다.

작자는 청문의 外形을 描寫할 때 이러한 圓滑함과 變化無雙함을 충분히 이용하였고, 또한 眞은 感情 색채의 작법을 사용하였다. 예를 들어 사월이 청문에 대해 말하기를 “언니가 나보다 키가 더 크잖아요”라고 하고, 사월의 말에서 청문의 키가 사월의 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제51회 : 麝月笑道：“好姐姐，我铺床，你把穿衣镜的套子放下来，上头的划子划上，你的身量比我高些”。<sup>19)</sup>

“언니, 제발 그러지 좀 말아요. 난 도련님 이부자리를 봐 드릴 테니 언니는 저 경대보를 내려놓고 놀림대를 질러 놔줘요. 언니는 나보다 키가 크잖아요.”

그러나 청문을 가장 미워하는 왕선보(王善保)댁의 왕부인의 참언(讒言)처럼 때때로 청문이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예쁘다고 한다.”고 하였는데, 어떻게 예쁜지에 대해서는 왕부인은 천문이 “물뱀 허리에 깎인 어깨”라면서 눈과 눈썹은 임대옥 같다고 여겼다. 그리고 왕희봉(王熙鳳)도 청문이 다른 시녀들보다 예쁘게 생겼다고 여겼다.

제74회: 王善保家道：“别的都还罢了。太太不知，头一个宝玉屋里的晴雯，那丫头仗着他生的模样比别人标志些，又生了一张巧嘴，天天打扮的像个西施的样子”……王夫人听了这话，猛然触动往事，便问凤姐道：“上次我们跟老太太进园逛去，有一个水蛇腰，削肩膀，眉眼有些像你林妹妹的，正在那里骂小丫头……”凤姐道：“若论这些丫头，总

19) 脂硯齋批評本「紅樓夢」,第五十一回『薛小妹新編懷古詩 胡庸醫亂用虎狼藥』,鳳凰出版傳媒集團鳳凰出版社, 2010, p.400



共比起来, 都没晴雯生得好……”20)

왕선보가 말하길 “ 다른 애들은 그런대로 괜찮고요. 마님께서 잘 모르시겠지만 그 보옥 도련님 방에 있는 청문이란 계집애 말예요, 남보다 얼굴이 좀 반반하게 생기고 주둥이까지 좀 여물었다는 것만 믿고는 날마다 서시같이 차리고 .....왕부인이 이 말을 듣고 언뜻 짚이는 데가 있어서 희봉을 돌아보며 물었다“언젠가 우리가 할머니 모시고 대관원에 놀러갔을 때 허리가 가늘고 어깨가 동그스름하고 눈매가 어딘가 대옥이를 닮은 계집애가 거기 서서 수습시녀를 호되게 몰아세우고 있었지.....” 희봉이 말하길“많은 시녀들 가운데서 타고난 인물로 말할 것 같으면 아무도 청문일 따르지 못 할 거예요. ”

## 2) 晴雯의 吃穿用度.

### 2-1) 晴雯의 服飾.

제 51회에서 사월의 복식에 대해 표현을 빌리면:

“晴雯麝月皆卸罢残妆, 脱换过裙袄……”“麝月忙起来, 单穿红绸小棉袄”……21)

“청문과 사월은 화장을 지우고 치마저고리를 잠옷으로 갈아입었다 사월이가 얼른 몸을 일으켜 나가려고 하는데 몸에 빨간 명주 솜저고리 하나밖에 걸치고 있지 않았으므로 보옥은 자기의 돈피털외투를 가리켰다.”

이는 겨울의 옷차림으로, 사월의 옷차림과 같지 않으니, 그녀의 지위와 비슷한 청문의 옷차림도 일반적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 2-2). 晴雯의 飲食.

20) 脂硯齋批評本「紅樓夢」,第七十四回『惑奸讒抄檢大觀園 矢孤介社絕宁國府』,鳳凰出版傳媒集團鳳凰出版社 2010, pp.518-582

21) 脂硯齋批評本「紅樓夢」,第五十一回『薛小妹新編懷古詩 胡庸醫亂用虎狼藥』,鳳凰出版傳媒集團鳳凰出版社 2010, p.400

책에서는 이홍원의 많은 시녀들이 먹고 마시는 것을 거론하였다. 예를 들어 제 62회에서 유씨댁(柳家)에서 방관(芳官)을 위해 만든 것이:

“一碗虾丸鸡皮汤，又是一碗酒酿清蒸鸭子，一碟腌的胭脂鹅脯，还有一碟四个奶油松瓤卷酥并一大碗腾腾碧荧荧蒸的绿畦香稻粳米饭”。

“새우완자에 닭 껍질을 넣고 끓인 국이 한 사발, 술로 찢 오리고기가 한 그릇, 소금에 절인 돼지고기 한 접시, 역시 소금에 절인 거위 건육 한 접시, 실백자를 넣은 우유과자 네 개, 그리고 김이 술술 피어오르는 희다 못 해 푸른빛이 도는 뽕쌀밥이 한 그릇이 들어있었다.”

평일에 시녀가 먹고 마시는 것이 좋았는데, 청문도 자연스럽게 먹고 마시는 것의 수준이 떨어지지 않았을 것임을 알 수 있다.

### 2-3) 晴雯의 個人喜好



제 20회에는 청문이 추문 등의 시녀들과 함께 도박하러 갔고, 사월만이 혼자서 바깥방에 있자 가보옥은 사월에게 머리를 빗어주었고, 급히 돌아와 돈을 가져가려는 청문에게 우연히 들켜 그들을 놀리는 모습을 볼 수 있다.

彼时晴雯，绮霰，秋纹，碧痕都寻热闹，找鸳鸯，琥珀等耍戏去了……晴雯道：“我没那么大福”说着拿了钱便摔帘子出去了……晴雯笑道：“你又护着。你们那瞞神弄鬼的，我都知道。等我捞回本儿来在说话。”……22)

이때 청문 기하 추문 벽흔 이들처럼 놀기를 좋아하는 아이들은 원앙과 호박 같은 친구들을 찾아 놀러가고 없었고.....청문이 말하길“ 전 그런 팔자가 못되는걸요” 돈을 찾아든 청문은 후다닥 문발을 들추며 급한 듯 밖으로 뛰쳐나갔다.....청문이 웃으며 말하길 “너 또 도련님 편을 드는구나! 수상한 사이를 누가 모를줄 아나보지?”

22) 脂硯齋批評本「紅樓夢」,第二十回『王熙鳳正言彈妒意 林黛玉俏語謔嬌音』,鳳凰出版傳媒集團鳳凰出版社,2010,pp.158-159

내가 지금은 본전을 찾으러 가기에 바빠서 이려고 있지만 어디 나중에 돌아와 다시 보자!”

도박이 바로 청문이 평소 다른 시녀들과 함께 하는 소일거리이자 취미임을 알 수 있다. 게다가 청문이 웃으면서 가보옥 등에게 “내가 본전 찾고 나서 다시 말합시다 (等我捞回本来再说)”라고 말하는 것에서 그녀가 도박을 매우 좋아하였음을 알 수 있다.

가모의 마음속에 가보옥 곁의 시녀들 중 外貌와 바느질 솜씨는 청문이 가장 뛰어났다고 여겼다.

제75회: 贾母听了, 点头道: “这倒是正理, 我也正想着如此呢, 但晴雯那丫头, 我看他甚好, 怎么就这样起来? 我的意思, 这些丫头的模样爽利, 言谈, 针线多不及他… …”23)

가모가 듣고 고개를 끄덕이면서 말하길 “청문이만은 괜찮은 아이였는데 어떻게 그렇게 되고 말았을까? 타고난 인물이나 말재간이나 일솜씨나 다른 애들은 그 애를 따를 수가 없겠기에……”

제 52회에는 야무진 청문이 공작털 외투를 기워주는 장면에서 더욱 청문의 生動感 있고 아름다운 姿態와 그녀의 재빠른 손재주 및 섬세한 바느질 솜씨를 描寫해내었다.

“晴雯先将里子拆开, 用茶杯口大小的竹弓钉牢在背面, 再将破口四边用金刀刮的散松松的, 然后用针纫了两条, 分出经纬……”24)

“ 청문은 먼저 외투 안을 따고 그 속에다 찻종크기만한 둥근 수틀을 물렸다 .그런 다음 길으로 불구멍의 주위를 칼로 긁어서 야들야들하게 피워놓았다. 그리고는

23) 脂硯齋批評本「紅樓夢」, 第七十五回『開夜宴異兆發悲音 賞中秋新詞得佳識』, 鳳凰出版傳媒集團鳳凰出版社 2010, p.617

24) 脂硯齋批評本「紅樓夢」, 第五十二回『俏平儿情掩蝦蟇 勇晴雯病補雀金裘』, 鳳凰出版傳媒集團鳳凰出版社 2010, p.411

바늘에 실을 꿰어 날실과 씨실을 갈라 비단을 짜는 식으로 먼저 계선을 정해놓고  
그 다음 원래무늬대로 바늘을 왔다 갔다 하며 짜 나갔다. 이렇게 두어 뚝뚝고는 들  
여다보고 또 두어 뚝뚝고는 들여다보고 하면서.....”



### Ⅲ. 晴雯의 性格特征과 晴雯의 죽음

이장에서는 주변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엿 볼 수 있는 청문의 성격 특징을 귀여움(可愛)과 끔찍함(可怕), 가여움(可憐), 3가지 部分으로 나누어 상세히 分析하고, 청문의 죽음에 관해서 研究하여, 청문의 悲劇的 죽음은 성격에서 비롯된 것임을 證明하기로하겠다.

#### 1. 晴雯의 性格

청문의 성격 중 잘 표현되는 점이 그녀의 진솔함이다. 이러한 점은 소설 속 그녀의 생활상에서 잘 표현되어지고 있는데, 호불호가 분명하고 자신의 생각을 거침없이 내 뱉는 성격이 특징이 있다 .

그녀의 生活環境과 地位의 特殊性 때문에 그녀로 하여금 이렇게 複雜한 環境속에서 어쩔 수 없이 나타내어지는 성격과 役割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러한 原因 때문에 귀여움(可愛)과 끔찍함(可怕), 가여움(可憐)이 동시에 그녀의 성격 속에 內包되어 獨特함과 豊富함을 가지게 되었다.

이러한 內面 性格이 包含되어져서 청문의 人物 形象은 이렇게 豊富하고 면밀히 새겨볼만한 性格으로 나타내어진다.

##### 1) 귀여움(可愛)

청문이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 진 첫 印象은 귀여움이다. 사실 작자의 소설속의 대부분 여자 아이들은 모두 귀여운 편이다. 습인은 賢明하고 德이 있으며, 원앙의 聰明하고, 평아의 古典美, 등 모두 사람으로 하여금 끌리게 하고 음미해 볼만한 성격이다. 그렇지만 청문의 魅力은 오히려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뛰어나서 『紅樓夢』 독자들로 하여금 청문의 獨特한 기질을 發見하지 않을 수 없게 한다.

## 1-1) 晴雯의 미모

전문에 이미 말했듯이, 대관원안의 侍女들중 청문의 美貌는 제일 뛰어나다. 다른 시녀들의 외모도 작가로 하여금 높게 평가를 할 수 없게 했다. 그러나 作家는 오히려 청문의 외모를 직접 描寫한적이 없다.

이렇게 몇 개의 간단하면서도 오히려 깊이 있는 側面描寫로 表現함으로인해, 讀者로 하여금 청문의 出衆한 외모를 짐작 할 수 있게 했다. 청문의 最後 悲劇의 배경인 왕부인도 청문을 “진짜 미인”이라고 평가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물뱀 같은 허리(‘水蛇腰’)는 바로 수양버들 같은 허리(‘杨柳腰’), 가냘픈 어깨(‘削肩膀’)는 바로 미인의 어깨(‘美人肩’), 가냘픈 어깨 와 가는 허리(‘削肩柳腰’)는 바로 고대 절세미인의 몸매이고, 눈매가 입대옥과 비슷한 형상은 청문의 용모나 身體가 말할 수 없이 뛰어난을 알 수 있다.<sup>25)</sup>

희봉 아씨도 청문을 다른 시녀 들 중 예쁘다고 느꼈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若论这些丫头，总共比起来，都没晴雯生得好……”<sup>26)</sup> LIBRARY

"많은 시녀들 가운데서 타고난 인물로 말할 것 같으면 아무도 청문일 따르지 못할 거예요..."

대관원에서 청문의 아름다움은 公式 認定받은 것이다. 여성에게 있어서 외모는 제일 直接的인 外部特徵이며, 封建社會에서 女性 評價의 基本 中の 하나이다.

청문의 이런 獨步的인 條件으로 인해서 그녀의 귀여움은 충분한 前提 條件을 具備한 것이다.

25) 王洪麗, 「析《紅樓夢》中丫环晴雯深得讀者偏愛的原因」, 遼寧公安司法管理干部學院學報, 2011, 第3期

26) 脂硯齋批評本, 「紅樓夢」, 第七十四回 『惑奸讒抄檢大觀園 矢孤介社絕寧國府』, 鳳凰出版傳媒集團鳳凰出版社, 2010, p.581

## 1-2) 晴雯의 재주

어떤 사회에서든지 여자에 대한 評價에서 聰明하고 숨씨 있다는 것은 여성이 사랑을 받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이런 면에서 청문은 여전히 높은 素質을 갖고 있다. 이는 제52회 내용 중 아무진 청문이 공작털외투를 깃는 장면에서 분명하게 表現한바 있다.

……宝玉在旁，一时又问：“吃些滾水不吃？”一时又命：“歇一歇。”一时又拿一件灰鼠斗篷替他披在背上，一时又命拿个拐枕与他靠着。急的晴雯央道：“小祖宗！你只管睡罢。再熬上半夜，明儿把眼睛**抠**了，怎么办！”宝玉见他着急，只得胡乱睡下，仍睡不着。一时只听自鸣钟已敲了四下，刚刚补完，又用小牙刷慢慢的剔出绒毛来。麝月道：“这就很好，若不留心，再看不出的。”宝玉忙要了瞧瞧，说道：“真真一样了。”晴雯已嗽了几阵，好不容易补完了，说了一声：“补虽补了，到底不像，我也再不能了！”暖哟了一声，便身不由主倒下。……<sup>27)</sup>



“……보옥은 옆에서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몰랐다.” 더운물을 좀 마셔보지 않겠어?” 하고 말해보기도 하고 “좀 쉬었다가 하지 그래.” 하고 권해보기도 하였다. 그러다가는 회서 피 외투를 가져다 청문의 등에 걸쳐주기도 하고 안석을 가져다 기대앉게 하기도 했다. 청문은 "도련님 제발 제 걱정은 마시고 어서 주무시거나 하세요 이렇게 밤을 세시다가 내일 눈이 움푹 들어가게 되면 어째요" 청문이 안달을 하는 바람에 보옥은 아무렇게라도 드러눕는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잠은 여전히 오지 않았다. 시계가 어느덧 네 점을 쳤다. 그제야 깃기를 마친 청문은 상아술로 천천히 기운 곳을 문질러 털을 피워놓았다. "숨씨가 이만저만이 아니네요, 일부러 살펴보지 않은 데야 아무도 기운자리를 알아내기가 어렵겠어요. "사월의 칭찬에 보옥은 별떡 일어났다. "어디 좀 보자고 정말 신통하네!" 청문은 그 사이에 기침을 몇 번 썩이나 해가면서 힘들게 기워놓은 옷을 보옥에게 건네주면 검사를 했다. "깃긴 기웠지만 대단치는 않아요, 하지 말 저로선 이 이상 더는 어떻게 할 재간이 없어요."

27) 脂硯齋批評本, 「紅樓夢」, 第五十二回 「俏平儿情掩蝦須縷 勇晴雯病補雀金裘」, 鳳凰出版傳媒集團鳳凰出版社 2010, pp.405-406

그러면서 청문은 아이고! 하는 소리와 함께 자리에 픽 쓰러지고 말았다……

가보옥의 공작털외투에 구멍이 났을 때 모두들 속수무책일 때 청문이 병환중임에도 불구하고 원래처럼 완전히 똑같이 다시 봐도 알아볼 수가 없을 정도로 옷을 기워주었다. 이것을 보고서 우리가 어찌 청문의 뛰어난 재능을 말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또한 많은 사람들이 청문이 아픔을 감수하고서 眞心으로 가보옥을 도와준 일에 대해 感動을 받았고, 이 진짜 感情은 자기 主人을 위한 아랫사람의 服從의 道理가 아니라 정말 두 사람이 서로를 위하는 마음 이였음을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다. 이러한 진심이 담긴 행동 또한 청문의 귀여운 성격을 나타내고 있다.

### 1-3) 晴雯의 진솔함

여자아이의 純眞함과 소탈함은 때로 남성들로 하여금 가장 魅力的으로 느끼게 하는 部分이다. 청문의 진솔한 性格 特徵은 젊음으로 인해서 表現되는 自然스런 特性이다. 그래서 이런 자연스런 소탈한 성격은, 그녀의 生活 中 작은 行動 表現으로 더 많이 나타난다.

51회 중에서 청문이 사월이 달구경 갈려고 문을 나설 때, “청문은 사월이를 놀래줄 생각으로 평소에 남보다 담이 크고 추위를 별로 타지 않는 터라 겉옷도 걸치지 않은 채로 동저고리 바람으로 훈롱 에서 내려서서 살금살금 사월의 뒤를 밟았다 마침 놀래주려고 할 때 방안에서 가보옥의 외침소리가 들려왔다.

麝月便开了后门，揭起毡帘一看，果然是好月色。晴雯等他出去，便欲唬他玩耍、仗着素日别人气壮，不畏寒冷，也不披衣服，只穿着小袄，便蹑手蹑脚的下了熏笼，随后出来。宝玉笑劝道：“看冻着，不是顽的。”晴雯只摆手，随后出了房门……只听宝玉高声在内说道：“晴雯出去了！”<sup>28)</sup>

28) 脂硯齋批評本, 「紅樓夢」第五十一回 『薛小妹新編懷古詩 胡庸醫亂用虎狼藥』, 鳳凰出版傳媒集團鳳凰出版社, 2010, p.401



사월이가 뒷문을 연 뒤 휘장을 쳐들고 나가는데 문밖은 정말 달빛이 대낮같이 밝았다. 청문은 사월이가 나가기를 기다렸다가 한번 놀래줄 생각으로 얼른 혼롱에서 내려섰다. 평소에 남보다 담이 크고 추위를 별로 타지 않는 터라 겉옷도 걸치지 않은 채 동저고리 바람으로 살금살금 사월의 뒤를 밟았다. 가보옥이 말리면서 말하길 “그만두라고, 그러다간 감기 걸리기 십상이야” 청문은 잠자코 있으라는 시늉을 해 보이고는 그냥 사월의 뒤를 밟았다. ....이때 방안에서 가보옥의 외침소리가 들려왔다. “청문이가 너를 따라 나갔어!”

이 단락의 詳細한 描寫로 청문의 소녀 같은 순진무구한 성격을 알 수 있다. 청문이 장난질은 흔히 사람의 純眞하면서 好感적인 表現인데, 이러한 行動에 화날 사람은 적고, 반대로 귀여운 行動으로 다른 사람의 好感을 얻게 될 것이다.

제70회중 청문 사월 방관의 옆구리 간질이기 장난은 청문의 純眞무구한 성격을 표현한 대목 중의 한 장면이다.



…只見他三人被褥尚未疊起，大衣也未穿。那晴雯只穿着葱绿院绸小袄，红小衣，红睡鞋，披着头发，骑在雄奴（芳官）身上。麝月是红绫抹胸，两脚乱蹬，笑的喘不过气来。”29)

.....바깥방에서는 세 시녀가 아직 이불도 개치 않은 채 속옷 바람으로 장난들을 치고 있는 것이다. 황록색 비단 적삼에다 붉은 속바지를 입고 붉은 잠신을 신은 청문은 머리를 풀어헤친 채 방관을 가로타고 앉아있고 붉은 능단 가슴 띠에 낚은 옷을 걸친 사월은 방관의 양쪽 겨드랑이를 간질이고 있는데 방관은 구들위에 반듯이 깔린 채 두발을 바둥거리면서 숨이 넘어갈 듯 캐득거리고 있었다.

이 作品 中 가장 많이 反映한 것은 청문의 純眞하고 소탈한 性格이 드러난 것들로 부채 찢은 事件이다.

제 31회에서 청문이 부주의하여 부챗살을 부러뜨리자 가보옥은 연이어 “멍청이”

29) 脂硯齋批評本, 「紅樓夢」, 第七十回 「林黛玉重建桃花社 史湘云偶填柳絮詞」, 鳳凰出版傳媒集團鳳凰出版社, 2010, p.548

라고 욕하면서 그녀가 “앞만 보고 뒤는 보지 못한다.”고 꾸짖었다.

그러나 가보옥이 성질부리는 것에 직면하여 청문은 고개 숙여 죄를 인정하지 않고 조금도 굴복함 없이 반박하였다. 게다가 “걸어차든 때리든 나으리 마음대로 하세요.”라고 말하여 가보옥이 “온 몸이 치가 떨릴” 정도로 화나게 하였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지 못하였던 것은 이 기세등등한 의외의 충들의 결과가 뜻밖에도 “부채를 찢으며 천금 같이 웃는다(斯扇作千金一笑)”라는 것이다. 하지만 바로 이러한 결과가 우리로 하여금 가보옥과 청문의 성격 본질의 공통점을 보게 하고 그들 사이의 일반적이지 않은 관계를 보게 하였다.

제31회 “偏生晴雯上来换衣服，不防又把扇子失了手跌在地下…….晴雯笑着，倚在床上说道：“我也乏了，明儿再撕罢。”宝玉笑道：“古人云，千金难买一笑。几把扇子能值几何？”<sup>30)</sup>

"하필이면 이런 때 청문이가 와서 보옥의 옷을 갈아입혀주다가 잘못하여 보옥의 부채를 떨어뜨리고 밟아서 살을 부러뜨렸다……청문은 침상에 몸을 비스듬히 기대며 일부러 깔깔 웃어댔다."오늘은 고단해서 더 찢지 못 하겠어. 내일 또 찢기로 하지." 보옥이가 웃으며 말하길 "옛날 사람들은 천금으로 웃음을 산다고 했거늘 그까짓 부채 몇 자루가 몇 푼이나 갈라고."

비록 청문의 이런 행동이 제멋대로 있지만 원래 이런 청문의 성격은 自由奔放한 少女本性的 순진함의 表現이다. 이 단락으로 청문의 少女같은 眞率한 性格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 1-4) 晴雯의 용감함

少女인 청문의 勇敢함도 바로 귀여운 면 중의 하나이다. 所謂 용감하다함은 청문이 平常時 다른 사람과 잘 부딪히고 말이 곱지 못하다는 것이 아니다.

제 74회중에서 청문의 용감함은 自尊心을 지키는 意識에서 나타내어진다. “간사

30) 脂硯齋批評本「紅樓夢」,第三十一回 『撕扇子作千金一笑 因麒麟伏白首双星』,鳳凰出版傳媒集團鳳凰出版社, 2010, pp.250-252

하게 남을 헐뜯어 대관원을 수색하게 한 것은(惑奸諛抄檢大觀園)”사실 왕부인의 그다지 聰明하지 못한 決定이었다.

대관원안의 모든 사람들이 이일에 대해서 反感이 많았지만, 대관원 안을 搜索하는 過程中 두 사람만이 자기 不滿을 드러냈다. 한 사람은 가탐춘(賈探春)이고 다른 한 사람은 청문이었다. 가탐춘의 不滿 表出은 表面的으로는 자기의 侍女를 保護하는 것이었지만, 사실은 자기 자신의 人格 尊嚴을 지키려는 것 이었다. 이 점은 청문과 相通하는 것이다. 그러나 두 사람의 地位로 보자면, 가탐춘은 주인집 아가씨이고 청문은 아랫사람 下女중의 한명인지라, 청문은 더 큰 勇氣가 必要했다.

그래서 反抗의 程度로 말하자면, 가탐춘은 주로 말로 하지만 어떨 때는 사람을 때리기도 했지만 그것은 왕선보 아내(王善保家)가 너무 放恣함으로 야기된 것 이다. 그리고 청문은 나오자마자 머리를 흐트러뜨린 채 달려 나와서는 상자를 들어 올려 뒤집어서 그 안에 있는 물건을 몽땅 바닥에 쏟아놓았다.

“……只見晴雯挽着頭髮闖進來，‘豁啷’一聲將箱子掀開，兩手提着，底子朝上，往下盡情一倒，將所有之物盡都倒出。”<sup>31)</sup>



“……청문이가 머리를 흐트러뜨린 채 달려 나와서 상자를 공중 뒤집어서 그 안에 있는 물건을 몽땅 바닥에 쏟아놓았다.”

자기의 분노를 분명히 표현한 것인데다가, 한명의 여자노비가 이런 행동을 한다는 것은 자기 本分이 가탐춘 보다 못하지 않은 듯 했다. 청문의 용기를 알아볼 수 있다.

청문의 魅力 能力 眞率함 勇敢함은 그녀의 귀여운 性格 構成의 한 部分이다. 청문은 조설근의 소설에서 描寫된 대관원 女子 中 아주 特出한 女子이다.

## 2) 끔찍함(可怕)

귀엽고 순진무구한 청문의 性格은 주요한 성격의 基本틀이고 청문의 인간미를 나타낸다. 그러나 청문은 작자의 소설에서 끔찍한 모습도 나타낸다. 루쉰 선생이 일

31) 脂硯齋批評本, 「紅樓夢」, 第七十四回 『惑奸諛抄檢大觀園 矢孤介社絕寧國府』, 鳳凰出版傳媒集團鳳凰出版社, 2010, p.583

찍이 말하길, “『紅樓夢』 이전의 소설은 좋은 사람은 완전히 좋은 사람이고, 나쁜 사람은 완전히 나쁜 사람으로 묘사되지만 홍루몽은 다르다. 그래서 그 중에 서술된 사람들은 진실한 인물이다.”<sup>32)</sup> 그래서 具體的으로 청문을 예로 들어 말하자면, 우리들은 이 귀여운 소녀에게서 귀여움과는 다른 側面인 끔찍함을 엿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절에서는 앞에서 말한 귀여움과 끔찍함이 같다고 보아진다. 사람들에게 보이는 청문의 성격은 그들의 主觀적인 이미지이기 때문이다.

## 2-1) 작은 시녀들의 晴雯에 대한 두려움

사실 청문을 제일 무서워하는 것은 이홍원 안에서의 비교적 지위가 낮은 수습시녀들이다. 그녀들의 面前에서 청문은 嚴格한 態度를 드러내 보이고 行動으로 수습시녀들에게 야단치고 때리는 것도 서슴지 않았기 때문이다.

가부에서 이런 주인의 하인들에 대한 태도가 부드러운 環境안에서 청문이 오히려 이런 형태의 견습 侍女들에 대한 태도로 수습시녀들은 호랑이를 대하듯 그녀를 두려워했음을 알 수 있다.

作品 中 의 이런 表現은 많은 部分에서 나타내어진다. 가보옥이 촛불을 켜고 공부할 하는데 작은 侍女가 꾸벅 꾸벅 졸다가 머리를 벽에 부딪쳤다. 자다가 잠결에 놀란 작은 시녀를 보면 청문이 다른 시녀들에게 말하길:

什么蹄子们，一个个白日黑夜挺尸挺不够，偶然一次睡迟了些，就装出这腔调来了。再这样，我拿针戳，给你们两下子……他怔怔的只当晴雯打了他一下，遂哭央说：“好姐姐我再也不敢了”<sup>33)</sup>

"이 계집애들이 정말 왜 이 꼴들이야! 밤이고 낮이고 그냥 송장처럼 늘어져 잠만 자고 있더니 그래도 졸려? 어찌다가 조금 늦어진 건데 이게 무슨 꼴들이람? 정 그러면 내가 바늘로 찔러 줄 테야!" 그 바람에 잠결에 깬 계집애는 청문이가 다른 애들을 나무라고 있는 소리가 자기를 나무라고 있는 소리로 알아듣고는 울음을 터뜨

32) "『紅樓夢』和从前的小说叙好人完全是好人，坏人完全是坏人，大不相同，所以其中所叙的人物都是真实的人物。”  
鲁迅, 『鲁迅全集』, 第8卷, 北京人民出版社, 1957年版, p.350

33) 脂硯齋批評本, 『紅樓夢』第七十三回『痴丫頭誤拾綉春囊 懦小姐不問累金鳳』, 鳳凰出版傳媒集團鳳凰出版社, 2010, p.571

리며 빌기 시작했다“언니 용서하세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청문이 욕을 하고 겁을 주며 후환이 두렵지 않다는 듯한 표현은 평상시 견습 侍女들에게는 자주 있는 일이다. 게다가 청문이 바늘로 사람을 찌르는 것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었다. 제52회에서 수습시녀 추아(墜兒)는 물건을 훔쳤기에 이런 고통을 겪었다. 청문은 별안간 몸을 앞으로 숙이며 추아의 손가락을 거머쥐었다 그리고는 베개 밑에서 비녀를 꺼내 추아의 손을 마구 찔러댔다.

“要这瓜子做什么? 拈不得针, 拿不动线, 只会偷嘴吃。眼皮子又浅, 瓜子又轻, 打嘴现世的, 不如戳烂了!” 墜兒疼的乱哭乱叫。

“이따위 손모가질 두어선 모해! 바느질을 할 줄 아는가, 수놓기를 할 줄 아는가? 그저 훔쳐 먹을 줄밖에 모르는 손모가질! 게다가 욕심은 얼마나 많은지 보이는 건 모두 집어가려고 든단 말이야 그러니 이따위 손모가지는 아예 찍어버리는 게 나야.” 추아는 아픔을 견디다 못해 엉엉 울며 소리를 질렀다.



청문의 이러한 舉動이 어떻게 견습 侍女들로 하여금 겁에 질리게 하였다. 그렇지만 자세히 읽어 보면 청문은 아무런 이유 없이 하는 게 아니라, 그녀가 매번 견습 侍女들에게 憤怒를 表現할때는 모두 견습 侍女들의 行動에서 問題를 發見했기 때 문 이었다.

평아가 일찍이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

“晴雯那蹄子是块爆炭””一时气上来, 或打或骂, ”“他是忍不住的”<sup>34)</sup>

“청문이 그 애는 성질이 불같아서 이일을 알게 되면 대번에 그 애를 때리거나 욕을 하거나 참지 못할 거야.”

청문이 수습 侍女들에게 무섭게 한 이유는 그녀의 不義를 보면 참지 못하는 本性

34) 脂硯齋批評本, 「紅樓夢」, 第五十二回 『俏平儿情掩蝦須鐳 勇晴雯病補雀金裘』, 鳳凰出版傳媒集團鳳凰出版社, 2010, p.405

과 불같은 性質에 의한 것이다.

## 2-2) 襲人の 晴雯에 대한 두려움

습인도 청문을 두려워하였다. 비록 이 점을 作家가 直接的으로 가르쳐 주진 않았지만, 우리는 많은 部分에서 볼 수 있다. 사람들이 자기의 地位와 未來에 다른 사람의 威脅이 있을 때 에는 마음속에 警覺心이 일어난다. 만약 상대방이 큰 勢力으로 당신의 地位와 앞날에 큰 威脅이 된다면 당신 마음속은 警覺心으로 인해 자연히 무서워하고 두려워할 것이다. 습인의 이상은 가보옥의 妾이 되는 것이고 이것은 그녀의 유일한 目標 이자 꿈이었다.

제 31 회에서 습인이 가보옥과 청문의 衝突에 和解시킬려고 할 때 말하길:

“好妹妹，你出去逛逛，原是我们的不是”，晴雯回敬说：“我倒不知道你们是谁，别叫我替你们害臊了，便是你们鬼鬼祟祟干的那事儿，也瞒不过我去，那里就称起我们来了。”<sup>35)</sup>

“청문아 그러 지 말고 이젠 밖에 나가 쉬어라 처음부터 우리가 잘 못했어“청문이 코웃음을 치며 말하길”우리라고요? 우리라면 누구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원내가 창피해죽겠네 당신들이 남의 눈을 피해가며 하는 짓들을 다른 사람은 다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내 눈만은 속여 넘길 수 가 없을 거예요. 아니 어느 촌수로 쳐서 우리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청문은 이러한 날카롭게 正鵠을 찌르는 말은 청문이 가시를 간직한 장미로 보이게 한다. 습인은 점차 왕부인의 총애를 받게 되고 가보옥의 첩으로 확정되었다. 습인과 가보옥은 일찍이 特別한 關係로 發生되었다.

그러나 가보옥의 곁에는 여러 方面에서 자기보다 더 뛰어난 청문이 있어서 威脅이 되었다. 위 論文 앞에서도 꺼냈듯이 가모도 청문을 아꼈고, 가보옥의 청문에 대

35) 脂硯齋批評本, 「紅樓夢」, 第三十一回 『撕扇子作千金一笑 因麒麟伏白首双星』, 鳳凰出版傳媒集團鳳凰出版社, 2010. p.250

한 愛情은 각별했다.

이런 상황은 妾의 條件이 청문과 습인이 비슷해서 습인으로 하여금 威脅的이고 두려움으로 다가왔다. 청문의 불같은 성질과 率直하게 直說的으로 말하는 것은 일찍이 습인으로 하여금 危險을 느끼게 했다. 그래서 가보옥이 화냈을 때 왕부인에게 고자질해서 쫓겨나게 했을 때 습인이 가보옥에게 무릎 꿇어 사정하는 狀況에서 알 수 있다. 표면적으로 보기에 습인이 청문을 위해 너그럽이 용서해주길 빌었지만, 실은 습인은 청문이 그녀와 가보옥사이의 雲雨之情을 입 밖에 내어서 커지는 걸 염려해서, 그건 그녀에게 絶對적으로 無益한것이라, 그래서 그녀는 어쩔 수 없이 일을 만들지 않고 편안히 지내길 원했다. 『紅樓夢』작품 중 습인의 청문에 대한 두려움은 청문의 運命의 悲劇에 더욱 부채질하는 계기가 되었다.

### 2-3) 王夫人의 晴雯에 대한 미움

왕부인은 가보옥의 어머니이고 가씨 家門의 진정한 女主人이다. 만약 그녀가 청문을 두려워한 것은 대부분 妥當한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청문의 存在는 반드시 왕부인 으로 하여금 두려운 마음을 품게 했고, 坐不安席이게 만들었음을 우리들은 否定하지 않을 수 없다.

왕부인은 어떤 사람이 그녀의 가장 重要한 가보옥을 誘惑해서 망쳐 놓는 것을 제일 두려워했다. 게다가 일찍이 청문이 바로 가보옥을 “誘惑”한다든지 “여우같은 것!”이라고 표현하였다. 이런 연유로 제74회에 그녀는 病中の 청문을 불러 이런 말을 했다:

“好好地宝玉，倘若叫这蹄子勾引坏了，那还了得！”……王夫人冷笑道：“好个美人儿！真像个‘病西施’了！你天天作这轻狂样儿给谁看！你干的事，大量我不知道呢！我且放着你，自然明儿揭你的皮！……”……因向王善保家的道：“你们进去，好生防他几日，不许他在宝玉屋里睡觉，等我回老太太，再处置他。”喝声：“出去！站在这里，我比不上这浪样儿！……”<sup>36)</sup>

36) 脂硯齋批評本, 「紅樓夢」, 第七十四回 『惑奸讒抄檢大觀園 矢孤介社絕寧國府』, 鳳凰出版傳媒集團鳳凰出版社, 2010, pp.582-583

" 너 정말 대단한 미인이구나! 어쩌면 그렇게 병든 서시를 닮을 수가 있느냐? 넌 도대체 날마다 그런 몸치장을 해서 누구에게 보이자는 거냐? 네가 하고 있는 짓을 누가 모를 줄 아느냐? 오늘은 잠시 가만 두겠다만 머지않아서 내가 네년의 껍데기를 벗겨놓을 테니 조심하란 말이다!....." 왕보선의 아내에게 이르기를 " 너희들은 우선 대관원으로 들어가서 이 애를 며칠간 잘 감독하고 있어라. 절대로 보옥이 방에서 자게 해선 안 돼, 그동안 내가 노마님께 여쭙어서 어떻게 하든지 처분을 할 테니까." 짜증을 내며 소리쳤다 " 어서 가봐! 그렇게 멍청히 서있지 말고 꼴도 보기 싫어!....."

평상시에 공양하고 불경을 읽는다거나 집안일에 거의 신경 쓰지 않는 왕부인이 이런 緣由로 아주 사납게 대하는 態度로 보아 왕부인은 청문을 싫어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청문을 極度로 嫌惡하는것으로 얘기 할 수 있다.

또한 청문이 왕부인이 싫어하는 임 대옥의 눈매를 닮았다는 것도 자연스럽게 왕부인이 청문에 대한 첫 印象의 偏見을 갖게 만들었다. 前文中 에도 言及했듯이 왕부인의 병든 서시를 닮은 “病西施“ 표현은 임대옥을 닮았다고 形容된것처럼 청문의 경솔함 또한 왕부인으로 하여금 더 청문을 싫어하게 만들었음을 證明 할 수 있다.

그렇지만 만약 이점이 왕부인이 청문을 싫어하게 되었음을 證明한다면 그럼 청문의 습인에 대한 威脅은 왕부인으로 하여금 경계심을 높이게 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다. 왕부인의 습인에 대한 偏愛는 널리 알려진바 있다.

습인의 人品과 德은 이미 왕부인 마음속에 가보옥의 妾의 條件으로 좋다고 여기게 만들었다. 그러나 청문처럼 이렇게 왕부인 에게 미움을 받는 사람이 뜻밖에도 습인의 제일 強力한 競爭 相對가 된다면 왕부인이 어찌 安心할수있겠는가? 청문이 왕부인의 미움을 받는 것은 必然적이였다.

아래로는 잡일을 하는 侍女들로부터 위로는 主人까지 表面的으로뿐만 아니라 마음속 깊은 곳까지, 그들 혹은 많거나 혹은 적거나, 모두 청문의 존재는 두렵게 만들었다.



### 3) 가여움(可憐)

사랑스럽거나 끔찍함은 모두 청문의 자연스런 本性이 나타난 性格 特徵이다. 그래서 한 사람의 性格은 본성의 성격에 의해서 決定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社會環境 要素에 의해서 한 사람의 人性的 形成과 發展에 制約과 統制를 가져오는 것과 마찬가지로이다. 이런 種類의 影響은 通常的으로 人間 本性이 약해지는 過程중에 사람의 性格 形成에 확실히 나타내어진다. 청문은 侍女중 한 명으로, 가씨 집안이라는 名文 大家의 侍女身分으로 그녀의 성격은 大저택의 아가씨들의 화려함속에서도 죽지 않고 眼下無人 性格으로도 자기의 主人인 가보옥의 寵愛를 받고 있었다. 그녀는 이런 사치스럽고 화려한 環境과 자유로운 環境속에서 자기 스스로 富裕하다는 헛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작가가 51회중 집중적으로 묘사한 청문성격의 이런 한 어두운 단면이다. 그녀의 몸이 약간 불편할 때, 지위로 봐도 자기보다 아래가 아닌 사월로 하여금 “그녀를 부축해 양치하거나”(服侍他漱口) 또 “차를 따르게 하거나 밥을 먹 게시 중을 들게 한 다”(倒了半碗茶与他吃了)거나 또 이렇게 말한다거나 “단 하루라도 너희들이 있으면 나도 편안히 쉬고 싶어”(有你们一日, 我就受用一日). 평상시 그녀와 사이 좋게 지내는 사월도 그녀를 보고 “아가씨노릇을 하고 있다”(装小姐)고 했다.<sup>37)</sup> 이런 상황은 청문의 허영을 쫓는 心理를 나타낸다.

위에서도 言及했 듯이, 청문의 성격은 확실히 率直하고 자연스러웠다. 그녀는 無意識중에 虛榮心이 나타나는 것을 감출수가 없었다.

뜻밖에 마침 그녀의 이런 거리낌 없는 性格은 그녀를 못 사람들의 攻擊對象이 되게 했다. 그녀의 理想과 現實사이의 괴리감은 갈수록 깊어갔다. 虛榮心과 率直한 性格은 그녀의 身分으로는 融畧될 수 없는 것이었다. 그녀가 가진 理想은 결국 毀滅되었고 이것은 그녀 人性的 가련함을 증명한다.

우리는 삼엄한 봉건 가족사회에서 하인들의 귀속은 주인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사실 청문도 이 점을 認識하고 있었다. 이런 인식은 그녀의 성격의 약점으로 明確하게 알 수 있다.

왕부인은 청문의 運命의 悲劇의 背後者로 나타내어지고 가씨 家門中 의 地位는 가모 다음이고 우리들은 청문의 왕부인의 態度로 이런 妥協을 알 수 있다.

37) 脂硯齋批評本, 「紅樓夢」, 第五十一回 『薛小妹新編懷古詩 胡庸醫亂用虎狼藥』, 鳳凰出版傳媒集團鳳凰出版社, 2010, p.400

제74회:……晴雯一听如此说, 心内大异, 便知有人暗算了他。虽然着恼, 只不敢作声……38)

... 청문은 왕부인의 이 같은 소리에 잠깐 어리둥절해졌다. 누군가 왕부인앞에서 자기를 중상했다는 생각이 들자 청문은 화가 불끈 치밀어 올랐으나, 그렇다고 그것을 밖으로 드러낼 수는 없는 일이었다 ...

그녀의 왕부인에 대해 존경심과 두려움을 동시에 가지고 있었다. 그렇지만 제 37회에서 그녀는 왕부인이 없을 때 그녀가 추문 등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말했다:

“我宁可不要, 冲撞了太太, 也不受这口气”。39)

“나 같으면 말이야 그런 건 안 받아 마님의 비위를 거스르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그런 억울함은 참지 못해”.



우리는 이 말이 바로 청문의 本性이고 이런 傲慢 방자함도 그녀의 本性에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그녀가 왕부인앞에서 妥協할때의 表現이, 그녀의 이런 妥協이 완전히 어쩔 수 없는 것이 여서 이것은 自己 本性과는 다른 것 이었다.

한 사람에 관해 말한다면 自己의 本性을 억누르는 것은 괴로움을 당하는 것이 고 그래서 청문의 이런 直說的인 性格의 사람으로 말하자면 自己 本性을 否定하는것으로 더욱 苦痛을 加重 시킨다. 우리들은 이런 内적으로 強烈한 矛盾 制壓의 고통스러움을 받았지만 참아야하는 것임을 알 때 우리들은 어찌 그녀를 가여워 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우리들은 청문이 받은 苦痛을 同情하지만 眞情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가여워하게 만든 점은 이런 原因들에 있다.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作家가 描寫한 청문의 慘憺하게 죽을 때 결국엔 同情心으로 눈물을 흘리게 만들었다. 이 단락은 아래 절에서 상세히 分析하겠다. 청문의 가

38) 脂硯齋批評本, 「紅樓夢」, 第七十四回 『惑奸讒抄檢大觀園 矢孤介社絕寧國府』, 鳳凰出版傳媒集團鳳凰出版社, 2010, p.582

39) 脂硯齋批評本, 「紅樓夢」, 第三十七回 『秋爽齋偶結海棠社 蘅芙苑夜擬菊花題』, 鳳凰出版傳媒集團鳳凰出版社, 2010, p.2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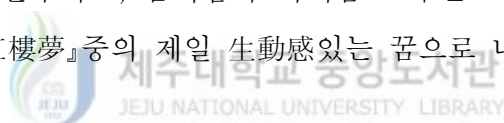
여움은 自己本性이 결정한 생각에 制限되어 있기 때문일 뿐만 아니라 더욱이 封建 社會制度和 生活環境이 그녀의 마음속에 심각한 被害를 끼쳤기 때문이다.

자유로운 本性和 生存環境의 影響은 청문의 가여움을 더욱 複雜하게 變하게 만들었다. 게다가 이런 귀여움(可愛)과 끔찍함(可怕), 가여움(可憐)은 청문의 성격을 豊盛하고 眞實한 性格의 소유주로 만들었다.

앞서 말한 內容을 綜合해보면 청문은 『紅樓夢』중 제일 典型的인 侍女의 典型으로 작자의 作品中에서 獨特하고 豊富性을 가지고 쓰였다. 동시에 眞實한 表現은 그녀가 少女로서의 완벽한 光彩로 表現되고 同時에 그녀의 個性있는 性格에도 制限되어 나타난다.

『紅樓夢』은 지금까지의 소설 중 독특한 개성과 성격의 등장인물들로 많은 명작 중에서도 가장 많은 사랑을 받는 다는 점이 이를 증명한다. 줄거리에서 人物에게 提供되는 環境이 나타난다. 環境과 性格이 衝突해서 생기는 것으로 펼쳐진다. 尖銳化된 矛盾 衝突중 人物의 특징으로 나타나 이어진다.

청문의 귀여움에도 불구하고, 끔찍함과 가여움 모두는 작가가 좋아하는 여성상을 쓴 것이다. 그들은 『紅樓夢』중의 제일 生動感있는 꿈으로 나타내어진다.



## 2. 晴雯의 죽음

“비 갠 뒤 밤하늘 달은 만나기 어렵고, 꽃구름은 흩어지기 쉽네. 마음은 하늘보다 높으나 신분은 낮고 천하네. 풍류 즐기며 민첩하고 재빠른 숨씨는 남의 원망을 부르고, 오래 살고 일찍 죽음은 이유가 많고 비망이 생기니, 정 많은 공자는 괜스레 근심하네. (“霽月難逢，彩雲易散。心比天高，身爲下賤。風流靈巧招人怨。夭壽多因誹謗生，多情公子空牽掛”) 이것은 작자의 청문에 대한 반영적 표현이다.

全面的으로 觀察한 “홍학”연구사는 학자들의 청문의 시각은 贊成하는 사람도 있고 毀損하고 貶下하는 사람 또한 있다.

그러나 어느 方面에서 보던지 간에 청문의 죽음은 『紅樓夢』 全集中의 큰 事件이라고 할 수 있다. 그녀의 沒落과 淒慘스런 狀況과 그녀 자신의 性格은 서로 緊密한 關係가 있다.

## 1) 성격에서 비롯된 운명

『紅樓夢』의 작자 조설근이 죽은 후에 서양에서 많은 세월이 흐른 후 19세기말에 이르러서 20세기 초 스위스 학자 칼 융이 영향력이 아주 큰 명제를 제안했다. 바로 성격이 곧 운명이다! 즉 성격을 심으면 장래에 운명을 수확 한 다라는 말은 『紅樓夢』본문 안에 같은 철학의미를 지니고 있다. 많은 사람들의 인생의 큰 변환 점에서 나타나는 것은 큰 기쁨, 큰 비극은 물론 정치적인 원인이기도 하고 경제 원인이기도 하고 기타 사회 원인이 있기도 하지만 제일 깊은 내면의 원인은 성격 때문임을 자주 드러낸다.<sup>40)</sup>

청문의 성격心理는 矛盾된 것이다. 한편으론 자기가 남보다 한수 위라고 생각하여 自慢心이 넘치는 天性이 있고, 또 다른 면으로 극히 銳敏하고 굳세지 못한 면도 있다.

“청문이 부채를 밟아서 또 찢어버리고(跌扇又撕扇)”에서 集中적으로 具體적으로 드러났다. 여기에서 그녀가 지나치게 자기 능력을 뽐내며 自己自身을 과시하는 성격임을 알 수 있고, 그녀 자신의 自尊心과 傲慢함을 알 수 있다.

이런 평범한 일은 侍女들에게 자기 실수를 조금도 容納지 않음을 強調한다. 그러나 그녀가 잘못을 범했을 때, 가보옥의 이런 꾸짖음은 그녀의 自尊心에 심각한 打擊을 입혔다. 그녀는 한명의 侍女일 뿐이다. 그렇지만 그녀는 가보옥이 그녀를 친구 이상으로 대해주길 원했고, 이것은 그녀자신의 矛盾이다. 그리고 대관원의 搜索 中에서 청문의 對抗이 현저히 나타났다. 짐을 뒤지는 狀況에서, 자기 尊嚴을 해하는 이런 行動에 청문은 폭발해 버린다.

그녀가 상자를 쏟아버리는 行動은 너무 많은 憤怒와 不服心을 나타내고, 그녀의 封建社會에 대한 큰 對抗의 心理는 그녀의 反抗行動이고 允許 할 수 없는 것이었다. 심지어 禁止된 것이었다. 그래서 그녀의 運命도 悲劇의 結末을 決定짓게 되었다.

작자는 가보옥과 임대옥 사이에 청문을 둔 것은 깊은 의미가 있다. 한편으론 가보옥과 임대옥의 叛逆적인 생각과 反抗 精神은 現實에 기초해있고 獨自的이고 支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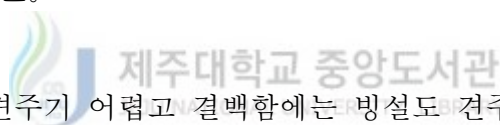
40) “曹雪芹去世以后, 在西方, 过了很多年, 到十九世纪末, 二十世纪初, 瑞士一位学者荣格, 提出了一个影响很大的命题, 叫做“性格即命运”, 也就是“播下一种性格, 你将收获一种命运”  
劉心武, 「劉心武揭秘紅樓夢」, 江蘇人民出版社, 2006, p.164

이 없는 것이 아니었고, 다른 한편으론 가보옥과 임대옥의 思想이나 性格이 혹은 많거나 적거나간에 청문에게 적지 않은 影響을 끼쳤다. 게다가 進一步적인 發展을 가져왔다.

이런 청문의 성격은 가보옥과 임대옥 특히 가보옥의 마음속에 강렬한 共通點을 가져왔다. 이런 점에서 그들은 존귀하고 비천함의 崩潰논리를 깨부수는 것은 生死를 같이 하는 친구 이상의 사이(生死知己)를 만들게 했다. 청문이 죽고 나서 그녀가 統治勢力에 대한 憤怒와 不平등 많은 유감을 가지고 죽어갔다. 그녀는 가보옥에게 無限한 그리움을 남겼다. 가보옥은 그녀를 위해 수없이 많이 눈물을 흘렸다고 특별히 쓰여 있다.

『부용녀아뢰』(芙蓉女兒諫)에서 청문에게 제사를 지내면서:

“其為質則金玉不足喻其貴，其為性則冰雪不足喻其潔，其為神則星日不足喻其高，其為貌則花月不足喻其色。”<sup>41)</sup>



"질로서는 금옥도 견주기 어렵고 결백함에는 빙설도 견주기 무색하며 신령함에는 해와 별도 비하기 어렵고 용모에는 달과 꽃도 빛을 잃었더라."

청문이 가보옥 마음속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청문의 죽음은 정해진 것 이었다. 그녀의 죽음은 階級과 사회의 原因이기도 하지만, 그녀의 突出된 個性과 그녀의 理想的인 人生을 향한 동경이 反抗情神과 卑賤한 身分地位가 형성한 強烈的 對比로 현저히 나타난다. 그래서 직접 그녀의 몰락으로 이끈다.

## 2) 晴雯의 죽음으로 본 성격과 비극

청문 最後의 悲劇은 性格이 낳은 悲劇으로 具體的으로 드러난다. 人物의 悲劇은 性格이 原因임이 具體的으로 드러난다. 평아가 청문을 비유해서 평가하자면 한마디로 정곡을 찌른다. 그녀는 청문에게 “불붙은 목탄” 이것은 “불붙은 목탄”같은 성격

41) 脂硯齋批評本, 「紅樓夢」, 第七十八回 『老學士閑征婉卿詞 痴公子杜撰芙蓉諫』, 鳳凰出版傳媒集團鳳凰出版社, 2010, p.626

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참을 수 없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자기 스스로 毀滅되게 만들었다. 청문은 다른 사람이 곤란한 상황에 처했을 시에 다른 사람을 더 난처하게 만들기도 하고, 그래서 그녀는 우물에 빠진 사람에게 돌을 던지는 것처럼 또는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것처럼 힘들게 했다. 예를 들면 왕선보의 집에서나 습인의 일에서처럼 청문의 성격과 그녀의 身分地位는 그녀의 環境과 당시 封建制度와 對立되어서 封建 上流階層의 統治者로부터 排斥을 당하게 된다. 왕부인은 당대 權力家로 눈에 거슬리거나 해서 그녀의 난폭한 성격에 공포감을 느끼게 되거나 나쁜 영향에 물들이게 하는 것은 가보옥의 封建家族의 根本을 깨뜨렸다. 가보옥은 封建家族이 그를 위해 按配한 벼슬길을 떠나게 했다. 왕부인은 가보옥이 자신에게 반역(叛逆)하는 本性 모두를 청문 탓으로 돌렸다. 그래서 청문 같은 사람을 가씨 가문에 두는 것을 절대로 許諾하지 않았다.

청문은 그녀의 純潔하고 強烈的 性格 때문에 조금의 잘못도 용납하지 않았다. 비천한 奴婢根性を 容忍하지도 않았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 의해 排斥당하거나 습인이 내부에 고자질하게 만든다. 왕선보 집에서 밖으로는 모함당하거나 비방을 당하거나 가씨家門의 주인과 노비들, 위아래 상관없이 박해와 억압을 당하거나 해서 청문은 단지 막 피어난 난꽃처럼 억울한 누명에 갑자기 요절하게 되었다.

성격의 비극은 인간의 特殊한 環境중에 드러난다. 자신의 性格行動에서 社會또는 異性이 정한 규정의 目標에 이를 수 가 없어서 毀滅되어진다. 性格의 悲劇은 성격의 成熟함과 行動, 社會 運命등 複雜한 關係가 있다 .그래서 자기 效果의 意義 그리고 價値가 있다.

고치기 어려운 “본성”에 의해 혹은 동화되거나 혹은 소외되거나 혹은 궤멸되어진다. 동화된다는 것은 天性이 외부의 자극에 대해 積極的인 반영에 同化되어지는 중에 자신의 컨트롤 能力에 의해 순화되어지고 자기 개조를 하고 擴張하는 중에 자기 스스로 잘 適應하게 만드는 것이다.

異化된다는것은, 天性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簡單히 말하자면, 바로 社會環境이 絶對的인權威 수립을 버리거나, 사람마다의 天性을 없애버리는 것을 말 한다. 자기의 統治에 僕從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毀滅된다는것은 明白하게 일괄적으로 “죽어도 뉘우치지 않다”는 것은 관습 따위를 쉽게 버리지 못하는 사람의 필연적인 결말이고 , 햄릿이나 오이디푸스 왕의 결말과 같다.

### 3) 性格의 중요한 意義

우리들은 性格이 사람에게 갖는 중요한 意義나 사람을 毀滅시키는 데 重要的 影響을 끼친다는 걸 發見 할 수 있다. 性格의 成熟과 獨立은 우리가 論議할 , 性格으로 인한 悲劇의 起點이거나 土臺이다. 성숙하지 못하면 同化되어서 發展할 可能性이 있고, 獨立의이지 않으면 疏外될 可能性이 있다.

유일하게 成熟함과 獨立은 性格이 바뀌지가 않음으로 毀滅을 가져오기 때문에 性格의 悲劇이라 말할 수 있다. 한사람의 성격은 특정한 環境중 성숙해지고 나서 社會에 대해 獨立의이거나 環境에 대해서 獨立의이 된다.

그러나 環境은 사람의 性格成長의 環境과 결코 一致한다고 말할 수 없다. 한사람은 완전히 자기와 다른 環境중에 들어가서 性格이 強力하게 對抗함이 나타나고, 환경의 必然적인 要求와, 이 性格이 實際적으로 實現할 수 없는 矛盾이 發生한다 . 悲劇은 性格적 문제로 말미 아마 毀滅로 이어지는 終結部이다 . 갈수록 많아지는 연구 증명 중에 성격은 사회 실천 활동 중의 重要的 意義를 갖는다. 심지어 사람의 최후의 結果를 決定짓게한다.

만약 임대옥의 죽음으로 말한다면 한결음씩 천천히 죽어가는 것이고, 청문의 죽음은 돌연히 요절하게 되는 것이다. 독자들은 임대옥의 죽음에 관해서는 예견을 할 수 있는 상황이어서, 그래서 청문의 죽음은 오히려 독자들에게 정서적으로 의외의 타격을 주었다.<sup>42)</sup>

계급이 엄격한 가씨家門에서 가모의 외손녀 임대옥 일지라도 到處에 操心하고 愼重한 면이 있고 매사에 警戒한것은 環境이 劣惡해서이다.

청문은 한명의 자기의 위치가 아주 낮은 侍女임을 분명히 알고 있지만 오히려 자주 제멋대로인 다혈질적인 性格이 나타나는데, 이것이 귀엽기도 하면서 비극적이기도 한 것은 바로 이런 성격 때문이다.

世俗的인 眼目으로 청문을 말하자면 , 완전히 분수를 모르고 무모하게 날뛰는 한 사람이거나 世上物情을 모르는 바보 같은 계집종이다. 世俗의 哲學으로 청문을 分析한다면, 그의 입은 制御할수도 없고 辛辣하고 매몰차서, 험담하거나 비꼬는 성격의 表象인지라, 확실히 미움을 받는 큰 缺點이 있다 .

42) "如果說林黛玉之死是一步步走向枯萎，而晴雯之死却是驟然遭遇到殘暴的摧折；讀者對於林黛玉之死是具有預期狀態的，而晴雯之死却是給讀者情緒上意外的打擊。"  
王昆崙，「紅樓夢人無論」，北京出版社，2011，p.17

사실, 조설근의 小說에서 청문의 다혈질적인 性格과 그녀의 卑賤한 身分사이의 그다지 조화롭지 못함을 분명하게 느낄 수 있다. 단지 그는 勸力으로도 武力으로도 한사람의 性格 本質을 바꿀 수도 없다는 점을 이 性格의 悲劇으로 明瞭하게 밝혔다.

만약 우리가 작자 조설근의 친필로 쓰인 임대옥의 죽음과 그로 인한 깊은 유감을 못 보았다고 말한대지만 우리는 조설근이 친필로 쓴 청문의 죽음을 보았으니 이 또한 얼마나 행운인가!





## IV. 晴雯의 文學적 價値

### 1. 晴雯의 陪襯作用

『紅樓夢』에서 청문이라는 人物과 그녀의 行動을 둘러싼 생생한 描寫는 著者의 뛰어난 藝術적 감각에 대한 表現이다. 청문은 作品의 構造와 줄거리 구성 면에서 起承轉結의 役割을 하고 있다. 특히 임대옥에 대한 보조 역할 면에서 獨特한 文學적 價値를 發揮한다.

청문은 容貌, 氣質 및 運命 면에서 임대옥과 약간 유사한 면이 있다. 작자 조설근은 청문을 容貌가 出衆하고 優秀하고 敏捷하다라는 稱讚을 하며, 임대옥과 같이 내용상 줄거리를 이끌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청문은 임대옥의 그림자이고 그녀는 생김새가 빼어나고 聰明하고 슬기로우며 高潔하다. 結果가 悲慘함은 임대옥과 비슷하다.<sup>43)</sup> 그래서 독자들 중에는 청문의 몸에 임대옥의 그림자가 보인다고 한다. 따라서 청문의 人物 이미지를 分析하자고 한다면 임대옥과 比較해보아야 한다.

#### 1) 命運의 暗示

사실 청문의 運命과 임대옥의 運命은 過程이 다르지만 結局은 같다. 제36에서 현장에 아가씨, 시녀들은 모두 하나의 꽃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꽃이름은 운명 암시가 적혀 있는 한 ‘죽침’이고 점치는 것 과 비슷하며 하나의 게임이다.) 청문만 없었다.

임대옥이 이미 ‘부용 죽침’을 뽑았기 때문이다. 그때 작자는 둘의 運命이 統一되고 있음을 부용에서 비유했다. 즉 부용으로 임대옥이 청문과 같은 運命임을 隱喻한다.

제36회 임대옥은 마음속으로 ‘내가 어떤 것을 뽑아야 좋을까?(不知道还有什么好的被我掣着方好)’ 묵묵히 생각하면서 손으로 한 개비를 뽑아서 죽침에 그려진 한 송

43) "晴雯是黛玉的影子, 她的模樣姣好, 心靈聰慧, 心性高潔, 結局悲慘同黛玉相似"  
許山河, 衡陽師範學院學報, 第26卷, 第4期, 2005

이의 부용을 보았다.<sup>44)</sup>

‘갑술본(甲戌本)’ 제8회에서 평론에서 “晴有林风,真真不错(청문은 대옥과 비슷하고 정말 좋다)”<sup>45)</sup>라는 말이 있다. 독자가 읽게 된 인물 이미지의含蓄적인 意義는 무엇인지, 著者は 늘 그들의 性格과 특징의 共通點을 파악하게 하려는 작자의 취지를 볼 수 있다. 이 두 人物은 각자의 선명한 個性을 갖추고 있고 쉽게 뒤섞이지 않지만, 그들의 悲慘한 運命은 비슷한 점을 가지고 있다. 청문과 임대옥은 性情뿐만 아니라 생김새까지 약간 類似하다.

## 2) 외모와 성격의 유사점

임대옥은 남의 집에 기거하기 때문에 自尊心이 强하고 성질을 잘 부리며, 남들이 듣기 싫은 말을 하면 무례하게 反應하곤 한다. 청문도 도도한 사람이고 많은 시녀들 앞에서 다 같이 한방에 있는 처지에 누구는 신분이 더 높고 누구는 신분이 더 낮겠니? 라고 선언하듯 말한 적이 있었다. 自尊 自重 抱負가 크기 때문에, 마치 또 다른 하나의 임대옥을 보는 것 같았다. 임대옥은 가씨네에서 일등의 美人이고, 청문의 예쁜 容貌도 가씨네의 다른 시녀들이 따를 수 없는 것이다.

왕희봉의 말에 의하면 ‘청문은 가씨네의 모든 시녀들보다 예쁘다.’ 왕부인이 보기에 청문의 눈썹과 눈매가 임대옥과 약간 유사하다고 생각했다. 이를 통해 청문과 임대옥은 외모와 성격이 얼마나 비슷한지를 알 수 있다.

## 3) 賈宝玉의 愛

청문과 임대옥은 모두 가보옥의 사랑을 얻었다고 볼 수 있는데, 세 사람의 사랑의 공통점은 아무런 맹세도 신체적 접촉도 없었지만, 정신적인 사랑이었다. 名譽와 利益을 追求하는 가씨네에서 사람마다 관리가 되어 나랏일을 하는 게 일반적이다. 가보옥은 이런 生活을 싫어했는데 이해를 하지 못했다. 小說 全體를 살펴보면 임대옥과 청문은 가보옥과 마음이 통하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그래서 당연히 가보옥이 청문에게 임대옥과 비슷한 感情을 가지고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44) 脂硯齋批評本, 「紅樓夢」, 第三十六回 「綉鴛鴦夢兆絳芸軒 識分定情悟梨香院」, 鳳凰出版傳媒集團鳳凰出版社, 2010, p.4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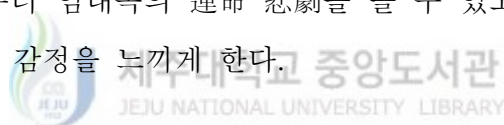
45) 「脂硯齋重評石頭記」, 中華書局上海編輯所, 1962年6月, 1版1印

가보옥의 임대옥과의 사랑은 가씨네 집안의 許可를 받지 못하고, 혼인을 하지 못한다. 이와 같이 청문도 임대옥과 비슷한 전철을 밟는다. 두 사람 모두 가보옥의 사랑을 받지만 젊은 나이에 요절을 한다. 청문이 죽은 후, 가보옥은 『여인부용퇴(女兒芙蓉誅)』를 써서 그녀에게 제사를 지냈다. 사실 임대옥에게도 祭祀를 지냈다. 이는 가보옥이 두 연인의 비극적 사랑에 대한 가슴 아픈 외침이다..

청문과 임대옥은 類似性이 많이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청문은 임대옥을 反映할 한다. 각각의 독특한 개성이 둘의 본질적인 차이를 나타낸다. 임대옥이 청아하고 뛰어난 선인초라면 청문은 바로 선인초에 맺힌 한 방울의 이슬과 같다. 絶世의 美人로 모두 高貴하고 외로웠다.

## 2. 芙蓉花의 象徵性

『红楼梦』에서 ‘여성’은 꽃과 같다. 청문과 임대옥은 부용과 密接한 관계가 있다. 그녀의 悲劇으로부터 임대옥의 運命 悲劇을 볼 수 있고, 著者는 보는 독자들로 하여금 답답하고 분한 감정을 느끼게 한다.



### 1) 水芙蓉과 木芙蓉

사실 『红楼梦』에서의 ‘꽃’은 각각 한 人物을 表示한다. 앞에서 言及한 바와 같이 임대옥이 죽음을 뻐할 때 부용 죽음을 뻐했다. 청문은 임대옥의 그림자로서 청문이 죽은 후 가보옥은 그녀를 위해 『여인부용퇴(女兒芙蓉誅)』를 썼다. 청문이 부용과의 對應 관계는 의심할 바가 없다. 하지만 ‘부용’은 옛날로부터 두 가지의 꽃을 일컫는다. 한 가지는 물의 연꽃을 말하고 별명은 ‘부용’, ‘수부용’(水芙蓉)이다. 또다른 가지는 육생 관목 또한 小乔木를 말한다. 이름은 ‘목부용’(木芙蓉)이고 약칭 ‘부용’이며 별명은 ‘나무 연꽃’이고 색깔은 연꽃과 비슷하며, 그 꽃 모양은 牡丹과 비슷하다. 이전의 고문에서 ‘부용’은 가끔 수부용을 말하고 가끔 목부용을 말한다. 또한 다른 시대에, 다른 지역에서 각각의 表現 습관이 있다. 그래서 후세의 독자들에게 혼선을 가져오게도 한다.

수부용은 자주 宗教와 哲學을 象徵하는 植物이다. 전에 神聖, 여성의 아름다움, 純潔함 등을 代表했다. 中國 傳統 文化 中 꽃 중에서의 君子는 理想적인 人格과 清

廉함의 象徴이다. 수부용의 별명은 ‘연꽃’이다. 임대옥이 『장화사』(葬花詞)에서: “본래 깨끗하게 왔다가 깨끗하게 돌아가는 도다 진흙탕속의 혼탁한 물속으로 빠지는 것보다는 한결 나으리니.....”(质本洁来还洁去, 强于污淖陷渠沟)라고 말했다.

임대옥이 수부용을 좋아하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녀는 수부용의 상징이다. 목부용은 추석 8월에 꽃이 피기 시작하고 음력 8월, 9월에 가장 많이 피며 남쪽 지역의 따뜻한 곳에 음력 10월까지 필 수 있다. 하지만 가보옥이 쓴 『여인부용퇴(女儿芙蓉誅)』에서 :

“维太平不易之元, 蓉桂竞芳之月, 无可奈何之日, 怡红院浊玉, 谨以群花之蕊, 冰皎之蘂, 沁芳之泉, 枫露之茗, 四者虽微, 聊以达诚申信, 乃致祭于白帝宫中抚司秋艳芙蓉女儿之前曰……”<sup>46)</sup>

‘오랫동안 평안하고 무사한 연대에 음력 8월에, 늘 나에게 어찌할 수 없게 하는 날에 이홍원의 가보옥은 백화의 화예, 얼음 상어로 만든 주름비단, 달콤한 샘물, 그리고 향기로운 차를 올립니다, 비록 작은 것이지만 이것들로 자신의 진심을 표시하고 백제공에서 가을꽃을 관리하는 선녀 부용녀의 앞에 두고 다음과 같이 말했다.’

부용화의 절기로 보면 수부용은 6월에 피고, 음력 8,9월이 되면 점차 시들고, 목부용은 음력 8,9월에 피는 것임에 따라서 「여인부용퇴(女儿芙蓉誅)」에서의 부용은 목부용이고 청문은 목부용의 象徴임을 推定할 수 있다. 그리고 조설근이 청문을 목부용을 관리하는 花神으로 浮刻하는 것은, 대옥의 藝術的 이미지와 區別할 수도 있는데, 이는 아주 巧妙하다.

## 2) 晴雯과 木芙蓉의 아름다움

목부용은 국화보다 늦게 피고 꽃이 피는 더 길다. 그리고 늘 물가에 심고 바람이 불고 서리가 내리면 더 아름답다. 고전 시문에서 청아하고 수려함, 탈속 등의 의미를 상징한다. 하지만 제78회의 부용퇴편을 보면:

46) 脂硯齋批評本, 「紅樓夢」, 第七十八回 「老學士閑征婉嫺詞 痴公子杜撰芙蓉誅」, 鳳凰出版傳媒集團鳳凰出版社, 2010. p.626

“忆女儿曩生之昔，其为质则金玉不足喻其贵，其为性则冰雪不足喻其洁，其为神则星日不足喻其精，其为貌则花月不足喻其色。姊妹悉慕嫵媚，姬媪咸仰惠德。”<sup>47)</sup>

‘나는 아가씨가 살아 있는 때를 생각하면 질로서는 금옥도 견주기 어렵고 결백함에는 빙설도 견주기 무색하며 신령함에는 해와 별도 비하기 어렵고 용모에는 달과 꽃도 빛을 잃었더라.’ 자매들은 다 아가씨의 얹전함을 부러워한다. 할머니도 아가씨의 선량한 성품을 숭경한다.

이는 청문이 고결한 품성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말했다. 그녀는 고결하고 건방지다. 그리고 권력자에게 빌붙지 않고 고고하다고 자부한다. 이로 인해 청문은 원활한 인간관계를 유지하지 못하고 권력자와 교류하지 못하며 결국 목숨이 비참하게 종결됐다. 사실 이는 목부용의 정신, 기질과 일치된다.

청문이 대관원에서의 모든 행위는 떳떳하고 가보옥에 대한 사랑은 순결하고 고상하다. 대관원이 재산 차압을 당할 때 청문의 언행은 번뜩이는 유성과 같이 순식간에 대관원의 캄캄한 밤을 밝혔다. 한풍과 서리 속에도 깨끗하게 직면하는 한 송이의 부용화와 같다.

### 3. 晴雯形象의 美學意義

『红楼梦』에서 성공적으로 描寫한 시녀가 많이 있지만, 청문은 작자가 열정을 많이 기울인 시녀이다. 청문은 率直하고 純眞하며 勇敢한 여성이지만, 封建 사회에서 자신은 굽히지 않는 것은 그녀의 인생에 悲劇을 초래한다.

청문이 죽은 후, 조설근은 가보옥이라는 인물로 才能이 넘쳐흐르는 『여인부용뢰(女儿芙蓉誅)』라는 祭文을 썼다. 그 중에서 청문에 대해 높이 讚揚했다. 청문의 悲劇의 이미지를 認識함으로써 우리는 비극에 대한 感想 能力을 돈독히 할 수 있다. 이리하여 審美와 感想 能力을 향상시키는 價値를 지니게 한다.

#### 1) 晴雯의 悲劇과 社會적 關係

47) 脂硯齋批評本, 『紅樓夢』, 第七十八回 『老學士閑征嫵媚詞 痴公子杜撰芙蓉誅』, 鳳凰出版傳媒集團鳳凰出版社, 2010, p.626

중국 數千年간의 封建 歷史를 자세히 살펴보면, 사실 청문의 悲劇은 個人의 悲劇이라고만 볼 수 없다. ‘사실 청문이 쫓겨남과 요절은 노예주가 위세를 부리기 때문에 한 시녀의 비극을 조성했다고 볼 수 있다. 청문이 封建 家庭인 가씨네에 있었는데 그녀의 特質이 매우 뚜렷하고, 가부의 각종 規定에 부합되지 않는다. 그녀는 너무 아름답고 눈부셔서 박해를 받는 것은 피할 수 없는 것이 었다.

청문의 성격이 身分과 一致되지 않아서 비극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극중한 단면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紅樓夢』을 읽어 본 적이 있는 독자는 『紅樓夢』이 시작부터 끝까지가 모두 悲劇임을 알 수 있다. 작품 속에서 悲劇의 運命에서 벗어날 수 있는 여성은 한 명도 없기 때문이다. 청문의 悲劇이 個人에 속하는지, 社會에 속하는지, 생각하게 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비극은 엄격하고 완전하며 일정한 길이의 행동에 대한 모방이다. 그것의 매체는 언어이고 각종의 듣기 좋은 소리를 가지고 있으며 극에서의 각 부분에 사용된다. 모방 방식은 인물의 동작으로 표현하는 것이고 서술법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며 연민과 공포를 일으킴으로써 감정 정화를 하게한다.’라고 했다.<sup>48)</sup> 아리스토텔레스는 悲劇의 本質을 밝힌다. 그는 現實 世界를 確信하고 藝術은 현실 세계에 대한 모방이라고 생각하지만 비극은 현실 세계에 대한 모방이 사람의 연민과 공포를 일으키며, 사람 마음속에 善을 일깨우고 사람의 감정을 깨끗하게 하는 데에 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悲劇 理論은 청문의 비극 속에 절절히 나타난다. 『紅樓夢』의 전 80회는 全體 作品에 대해 복선을 깔아두어, 거대한 격차를 이루었다. 청문의 비극은 小說에서 당시 봉건사회 縮小版인데, 가보옥과 임대옥의 사랑의 비극, 가보옥과 설보채의 婚姻의 悲劇을 예시하고 있다. 청문의 비극은 『紅樓夢』의 여자들 비극의 도화선이 되어 조장하는 역할을 했다.

## 2) 晴雯의 비극적 효과

조설근은 청문을 아름답고 똑똑한 여성으로 묘사했다. 그녀의 비극적 결말은 사

48) “悲劇是對於一个嚴肅、完整、有一定長度的行動的模仿；他的媒介是語言，具有各种悅耳之音，分別在劇中的各部分使用；模仿方式是借人物的動作表達，而不是采用敘述法，借引起憐憫與恐懼來使這種情感得到淨化。”  
亞里士多德，「詩學」人民文學出版社，1962，p.19

람으로 하여금 자기도 모르게 슬퍼지게 하고 同情하게 한다. 청문이 비참하게 죽기 전 상황이 자리 옆에 찻잔이 놓여 있고, 청문 옆에 누워 마른 나뭇가지와 같은 손이 보이고 있다고 쓰여 있다<sup>49)</sup>.

이 모든 것은 청문의 비참한 죽음을 외부적인 환경으로 묘사했다. 청문은 비참하게 죽었고 그녀의 죽음은 살아 있을 때의 모습과는 선명한 대조를 이룸으로써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게 하고 있다. 청문은 봉건제도의 사회적 상황 속에 많은 어려움에 직면할 때 마다 포기하지 않고 불굴의 의지로 죽기 전 까지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었다. 이런 모습에 독자는 자신을 투명시켜 감동하게 된다.

왕국유는 쇼펜하우어의 비극이론을 인용하여 세 가지 비극을 제시하였다. 첫째, 아주 악인은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나쁜 짓을 다 하게 하는 것이다. 둘째, 맹목적으로 운명에 부딪치는 사람이다. 셋째, 소설에서의 인물의 위치와 관계로 인해 그럴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꼭 나쁜 사람이 변고가 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인 사람은 일반적인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비극인 것이다. 사람들이 그들의 피해를 잘 알지만 가만히 두고 받아들이기만 하고 서로 주고받기만 한다.<sup>50)</sup> 첫째, 둘째 悲劇은 사람을 不幸하게 만들지만 사람마다 다 피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셋째 悲劇으로 비극 속의 인물은 다가오는 불행을 피할 수도 없고, 아무리 노력하여도 피하지 못한다.

그 비극은 미래의 위험이 있는 것을 알더라도 계속 나아갈 수밖에 없고 피하지 못하는 도전에 직면하고 그 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다 가는 용기이다. 『紅樓夢』은 바로 이런 비극이고 비극 중의 비극이다.

청문은 노비로서 출신이 좋지 않고 자신의 運命을 決定하지 못하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비극이 정해지고 피할 수 없었다. 청문은 자신의 生活을 選擇할 權利가 없고 運命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 앞에 危險이 많은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말을 가리지 않고 말하므로 청문의 비극은 암시되어 있었다.

衝突, 抗爭, 그리고 滅亡은 悲劇을 構成하는 3가지 핵심 요인인데, 청문의 비극은

49) 脂硯齋批評本, 「紅樓夢」, 第七十七回 「俏丫鬢抱屈夙風流 美优伶斬情歸水月」, 鳳凰出版傳媒集團鳳凰出版社, 2010, pp.613-614

50) "第一種之悲劇, 由極惡之人, 極其所有之能力, 以交構之者; 第二種, 由於盲目的運命者; 第三種之悲劇, 由於劇中之人物之位置及關係而不得不然者, 非必有蛇蝎之性質與意外之變故也, 但由普通之人物, 普通之境遇, 逼之不得不如是。彼等明知其害, 交施之受之, 各加以力而各不任其咎。"

王國維, 「紅樓夢評論」, 時代文藝出版社, 2006, p.26

바로 이 세 가지 요인을 둘러싸고 展開되었다. 첫째, 청문의 성격은 가씨네와의 갈등에서 생기고 충돌되었다. 둘째, 청문의 성격이 너무 간죽거리고 참지 못하며 급한 성격이라, 언젠가는 폭발할 수밖에 없었다. 셋째, 청문의 운명은 비참하고 여자하인으로서 주인 가씨네와 대립 항쟁하면 멸망하게 마련이다. 청문의 비극은 사람들에게 마음의 고통뿐만 아니라 깊은 반성과 간절한 물음을 주고 있다.

『紅樓夢』을 읽으면서 우리는 자신에게 질문한다. 순진한 여자가 왜 이렇게 죽게 되는지를, 더 나아가 마음속에 사회의 불공평을 비판하며, 독자는 청문의 입장에서 불공평한 사회를 비판하게 된다.

청문의 비극은 사회로부터 강제적으로 부여된 것이지만, 그녀의 인생의 중요한 돌파이기도 하다. 사는 것이 죄가 되면 마음이 아무리 강인해도 사회의 커다란 힘에 항쟁할 수 없고 항쟁 후 죽음을 통해 인생의 가치를 실현한다. 청문의 비극은 바로 이런 사회 불만의 표현이고 육체는 비록 죽어서 없었지만, 정신은 계속 살아, 한 사람의 비극을 통해 후세로 영원히 전달된다.

청문의 비극은 개인의 비극이 아니라 封建社會 末期에 처한 모든 사람의 비극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청문의 이미지는 더욱 가까워지고 주제는 더욱 선명해지며 비극적 분위기는 더욱 짙어진다.

작자의 소설 속 청문의 비극적 이미지는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美學 思想의 인물묘사로 후세 사람들에게 審美的인 感想뿐만 아니라 예술적 가치로 승화시킨다.



## V. 結 論

『紅樓夢』에서 서술하는 “금릉십이차우부책(金陵十二钗又副册)”의 명부에서 청문(晴雯)은 첫째에 위치한다. 그 “종이 가득한 먹구름과 탁한 안개(滿紙烏云濁霧)”는 靑春과 빼어남이 암흑세력에 의해 집어삼켜진 그녀의 비참한 운명을 象徵한다. 즉 그 결론인 “비 갠 뒤 밤하늘 달은 만나기 어렵고, 꽃구름은 흩어지기 쉽네. 마음은 하늘보다 높으나 신분은 낮고 천하네. 풍류 즐기며 민첩하고 재빠른 숨씨는 남의 원망을 부르고, 오래 살고 일찍 죽음은 이유가 많고 비방이 생기니, 정 많은 공자는 괜스레 근심하네.(霧月難逢, 彩雲易散. 心比天高, 身爲下賤. 風流靈巧招人怨, 壽夭多因誹謗生, 多情公子空牽掛.)”는 美人薄命인 그녀의 悲劇적 人生을 썼다.

曹雪芹은 청문에게 신선한 이미지와 풍부한 내포를 주었다. 그 인물과 이름부터 그녀의 言行까지, 하나의 간단한 符號부터 생동감 있는 문학적 이미지까지, 작자는 曲折이 많고 복잡한 文學 창작의 길을 經驗하였고, 청문도 문학에서 그녀의 人生을 훌륭하게 演繹하였다. 이 길을 探究하는 것은 하나의 신선한 문학 生命을 탐구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사람의 本性을 탐구하는 것이다.

청문을 전체적으로 보면, 그 사람됨은 聰明하면서 재주가 있고 솔직하면서 순진하지만 미워할 때 원수처럼 미워하고 싫어한다. 그녀가 다른 사람과 좋게 지내지 않았지만 언제나 떳떳하다.

청문은 曹雪芹이 특별히 사랑하는 文學 이미지로서, 그녀는 한 명의 副次的으로 중요한 인물로서, 그녀는 자신의 독특한 文學 意義를 지니고 있다. 즉, 두드러지게 하는 작용은 그녀의 價値로, 芙蓉花는 그녀의 상징이고, 청문이 “공작털옷을 입고(補裘)” “부채를 찢는(撕扇)” 것은 그녀의 典型的 이미지이다. 그러나 청문은 비극적인 인물이기도 한데, 대관원(大觀園)의 여러 여자들과 같이 쇠잔해지는 비극적 운명을 벗어날 수 없었다.

청문의 젊지만 짧은 人生을 진지하게 조사한 후, 世俗에 구애됨이 없이 신념대로 행동하고 원수처럼 미워하고 싫어하며 마음대로 행동하는 성격에 매료되지 않을 수 없었고, “마음은 하늘보다 높으나 신분은 낮고 천하다(心比天高, 身爲下賤)”는 비극적 人生에 탄식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이런 것들을 탐구하고서 성격적 비극을 끝내 벗어날 수 없는 마지막 결말이 내포하는 길은 美學的 價値에 뒤흔들리지 않을 수 없었다.

『紅樓夢』의 평점비주(評點批注)는 由來가 오래되었고 수량은 매우 많으며 내용은 풍부하다. 다른 문학 작품과 비교하면 이러한 비판적 評論은 소중하다. 필자도 이러한 평점들을 청문 연구에 運用하여 참고로 삼았다.

이밖에 “홍학(紅學)”의 대량의 연구 論著와 論文은 엄청나게 많고, 그 중에 청문에 대한 훌륭한 研究 作品은 매우 많다. 이에 대해 필자는 열심히 조사하였고, 아울러 몇몇 強力한 연구논문을 인용했다.

本文의 目的은 바로 『紅樓夢』의 청문에 대한 分析 시도를 통해 청문이라는 특정 이미지의 사회적 의의에 대한 독자의 이해 및 인물 自體의 個性化 內包에 대해 더 깊은 發掘을 深化하는 것이다. 본 論文은 청문이라는 인물에 대해 體系적인 分析을 통하여 아래의 結論을 얻어내었다.

첫째, 청문이라는 인문과 이름에는 豊富한 內包가 있다. 청문의 일생 배경에 대한 발굴을 통해, 청문이 처한 봉건 환경 하에서의 축노(蓄奴) 풍조와 清代 奴婢 制度에 큰 관련이 있음을 동시에 이해하였다. 청문이라는 이름은 그녀가 마지막으로 美人 薄命이었던 悲劇적 人生을 은연중에 내포하였다.

둘째, 청문의 典型的인 성격은 극도의 獨特함과 풍부함 및 결코 簡單하지 않은 “반항성(反抗性)”을 지녔고, 청문의 죽음은 성격의 비극이다. 청문은 『紅樓夢』에서 가장 전형적인 시녀 이미지로서, 조설근의 필치에서 극도로 독특함과 풍부함을 지녔고, 그녀가 소의 몸에 완벽에 가까운 광채를 지닌 것만은 아님을 매우 眞實하게 표현해 낸 동시에 그녀 성격을 俱現하는 성격적 限界가 存在하기도 한다. 청문의 전형적인 성격은 그녀가 처한 封建 環境에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必然적으로 破滅로 걸어갔다.

셋째, 청문은 부용화·임대옥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청문은 임대옥의 그림자로서 돋보이게 反映시키는 重要한 作用을 발휘하였다. 청문의 비극은 개인의 비극일 뿐만 아니라 사회의 비극으로, 그녀의 비극 價値와 藝術 이미지는 緊密하게 連結되어, 審美적인 意義의 감상으로써 비극에 대한 感賞 能力을 깊게 하였다.

## 參 考 文 獻

### 參 考 書 目

- [1] 『魯迅全集:集外集拾遺補編 (8)』, 人民文學出版社, 1981年版
- [2] 『周汝昌校訂批点本<石頭記>』, 鳳凰出版傳媒集團, 譯林出版社, 2011年版
- [3] 曹雪芹、高鶚『紅樓夢』, 崇文書局, 2006年版
- [5] 王國維『<紅樓夢>評論』, 時代文藝出版社, 2010版
- [6] 羅宗英、陳洪『中國古代文學史 (二)』, 華東師範大學出版社, 2000年版
- [7] 朱立元『美學』, 華東師範大學出版社, 2007年版
- [8] 朱光潛·悲劇心理學·北京:人民出版社·1987年
- [9] 何其芳『論紅樓夢』, 人民文學出版社, 1961年版
- [10] 王昆侖『紅樓夢人物論』, 河北教育出版社, 1989年版
- [11] 劉曉明『紅樓人物談』, 南京出版社, 1997年版
- [12] 孫愛玲『紅樓夢』人文之思辨, 蘇州大學, 2006年版
- [13] 朱一玄『紅樓夢資料匯編』, 南開大學出版社, 1985年版
- [14] 張畢來『紅樓佛影』, 上海文藝出版社, 1979年版
- [15] 張曉琦『紅樓迷話』, 2000年版
- [16] 翟勝建『紅樓夢人物姓名之謎』, 2003年版
- [17] 王昆侖『紅樓夢人物論』, 1983年版
- [18] 一粟『紅樓夢卷』第1冊, 中華書局, 1963年版
- [19] 陳家宏『晴雯悲劇作為性格悲劇思考時的心理文化机制』, 紅樓夢學刊, 1997年版
- [20] 張重崗『<紅樓夢>悲劇說解析』, 北京科技大學學報, 2000年版
- [21] 郭英德, 于翠玲『中國古典文學研究史』, 中華書局, 2000年版
- [22] 趙臻:『紅樓夢』主旨与創作心態, 廣西師範大學, 2005年版
- [23] 徐 瑛『春夢隨云散, 飛花逐水流』, 唐都學刊, 1997年版
- [24] 『周汝昌校訂批点本<石頭記>』, 鳳凰出版傳媒集團, 譯林出版社, 2011年版
- [25] 亞里士多德『詩學』, 人民文學出版社, 1962年版
- [26] 張曉琦『紅樓迷話』2000年版
- [27] 翟勝建『紅樓夢人物姓名之謎』2003年版

[28] 張畢來 『紅樓佛影』1979年版

[29] 王昆侖 『紅樓夢人物論』1983年版

### 參 考 論 文

- [1] 孫樹勇 『論晴雯形象的人性內涵』 2003年 第3期
- [2] 許山河 『黛影釵副，各領風騷』——論晴雯，襲人的悲劇形象 衡陽師範學院學報 2005年 8月 第4期
- [3] 劉夢溪 『論晴雯』（社會科學戰線） 1978年 第2期
- [4] 任犢 『學習与批判』——論晴雯的反抗性格 1973年 第3期
- [5] 楊志杰 『爲晴雯昭雪』（紅樓夢研究輯刊） 上海古籍出版社 1979年 第1輯
- [6] 『論<紅樓夢>』（紅樓夢論稿） 人民文學出版社 1958年版
- [7] 蔣和森 『<紅樓夢>人物贊』（紅樓夢論稿） 人民文學出版社 1959年 第1版
- [8] 王剛 『試論晴雯』 固原師專學報 1996年 第1期
- [9] 鈕中躍 晴雯的重要与重要的晴雯 『吉林化工學院學報』 2013年 第4期
- [10] 白旭輝 光彩照人的反奴性典型——『紅樓夢』中晴雯形象試析 現代語文 2014年 第9期
- [11] 吳秀藝 『紅樓夢』中晴雯悲劇命運淺探 文學教育 2013年 第8期
- [12] 馬萍 『紅樓夢』中晴雯形象淺析 大眾文藝 2013年 第17期
- [13] 李鴻洲, 李淑玉 『紅樓夢』中晴雯与小紅形象比較研究 東北大學學報 2008年 第5期
- [14] 林東亮 『紅樓夢』導讀教學中的晴雯人物形象鑒賞 福建基礎教育研究 2012年 第4期
- [15] 鄧溪燕 也論『紅樓夢』中的晴雯 長沙鐵道學院學報 2012年 第3期
- [16] 石易 分析『紅樓夢』中的晴雯和襲人 文學教育 2011年 第9期
- [17] 莫珊珊 從『紅樓夢』看二十年來晴雯形象研究 四川職業技術學院學報 2005年 第1期
- [18] 張超旭 『紅樓夢』中晴雯的悲劇 長安學刊 2011年 第1期 [9]
- [19] 易冬梅王春蘭 淺析『紅樓夢』中晴雯的悲劇命運之原因 科教文匯 2009年 第1期
- [20] 馬國權 晴雯襲人平儿簡論——『紅樓夢』人物論綱之二 咸陽師範學院學報 2007年 第1期
- [21] 蘇勇賴大仁 『紅樓夢』中的權力与話語——以賈宝玉和晴雯爲例 廊坊師範學院學報 2006年 第3期
- [22] 劉莹李迪 淺析《紅樓夢》中晴雯形象 黑龍江教育學院學報 2007年 第12期
- [23] 吳全民 向往美好 結局悲慘——淺析『紅樓夢』中晴雯形象 河西學院學報 2002年 第4期
- [24] 周越男 『紅樓夢』人物賞析——晴雯 黑龍江教育學院學報 2006年 第4期
- [25] 王華英 『紅樓夢』中小人物形象塑造探析——以晴雯爲例 飛天 2009年 第23期
- [26] 王洪麗 析『紅樓夢』中丫環晴雯深得讀者偏愛的原因 遼寧公安司法管理干部學院學報 2011年 第3期

[27] 于璟 淺析『紅樓夢』中的丫环——晴雯 時代文學 2008年 第11期

[28] 馮文樓 『晴雯:一个悲劇性的存在』 紅樓夢學刊 1994年 第2期

[29] 楊琴 『也談晴雯的悲劇命運』 文教資料 2013年 第17期



# 『紅樓夢』의 인물 晴雯에 대한 考察

李 眞 杉

濟州大學校 大學院 中語中文學科

(指導教授：趙 成 植)

## 【中文提要】

兩個半世紀以前的曹雪芹，既為中華民族豎起了一座高入云天的文學丰碑，同時也為后世讀者建造了一座扑朔迷离的藝術宮殿正所謂“滿紙荒唐言，一把辛酸淚，都云作者痴，誰解其中味”。『紅樓夢』自成書以來，就被世人所關注和研究，尤其是現代，更是產生了一門研究『紅樓夢』的學科——紅學，一時間觀點疊現，名家輩出。

塑造出成群有血有肉的个性化人物形象是『紅樓夢』藝術上的巨大成就。

曹雪芹塑造的人物千人千面，真實生動，個性鮮明，突出寶、黛、釵、鳳等主要人物故不必說，就是曇花一現似的次要人物也無不新鮮別致，給人以深刻印象，比如說晴雯。

『紅樓夢』各个版本關於晴雯的描寫沒有太大出入，較為一致。晴雯作為『紅樓夢』中男主人公賈寶玉的八大丫鬟之一，《金陵十二釵又副冊》之首。雖然地位不高，但作者對她着墨甚多。曹雪芹對她人物塑造十分丰满，性格描寫極為突出。

隨着時代意識形態的變化，學者們對晴雯的分析評論也在發生變化。但以‘紅學’中對晴雯這一形象的研究，學者多從晴雯的叛逆精神及晴雯對封建禮教的反抗意識性格特征入手，着重討論晴雯這一特定形象的社會意義，而對人物本身个性化內涵的挖掘却顯不足。

本文的目的就是通過對『紅樓夢』中晴雯的分析試圖加深讀者對晴雯這一特定形象的社會意義的理解及對人物本身个性化內涵進行更深的挖掘。『紅樓夢』的評點批注由來已久，數量眾多，內容豐富。較之其他文學作品，這些點評是很寶貴的。筆者也將這些評點運用在晴雯研究中作為參考。此外“紅學”的大量研究論著論文，卷帙浩繁，其中不乏

有對晴雯的研究佳作。對此筆者盡力查看，并將一些力証引用進來，從晴雯其人其名，晴雯與其他人的關係，以及分析晴雯性格中的獨特性與夏雜性和晴雯的文學價值方面來進一步研究晴雯鮮明的人性特征。

『紅樓夢』研究從一開始就呈現出扑朔迷离，衆說紛紜的局面。曹雪芹的『紅樓夢』爲我們留下了太多謎團。這也正是『紅樓夢』本身巨大的藝術魅力。曹雪芹給與了晴雯鮮活的形象和豐富的內涵。從其人其名到其言其行，從一個簡單的符號到一個生動的文學形象，作者經歷了一個曲折夏雜的文學創作之路，晴雯也完美地演繹了她在文學中的人生。

探究這條道路，既是探究一個鮮活的文學生命，也是探究人的本性。

關鍵詞：『紅樓夢』晴雯 個性化內涵 獨特性 夏雜性 性格 人性特征

